

제5장 복지 및 생활환경 부문

제1절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제3절 여성·가족친화 지역환경 구축

제4절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기반확충

제5절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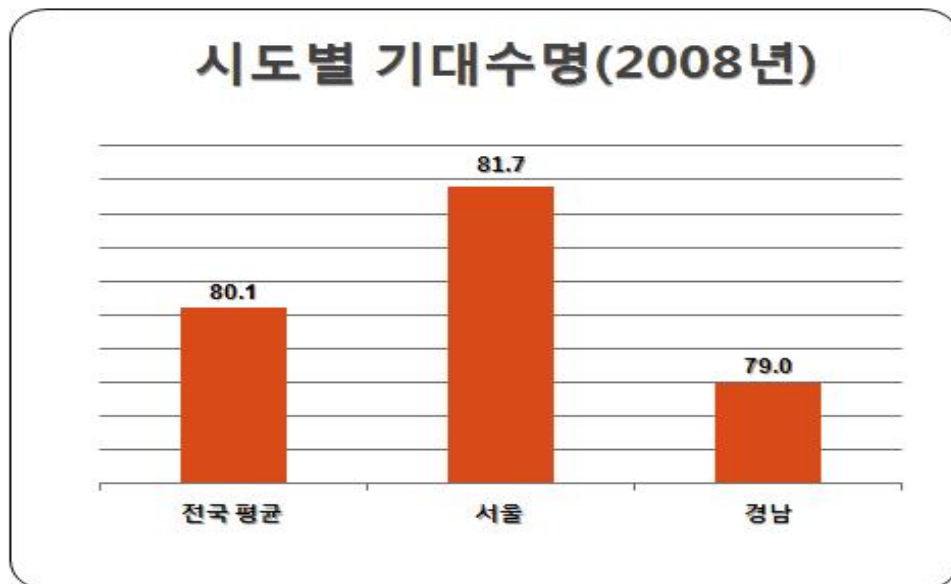
제5장 복지 및 생활환경

제1절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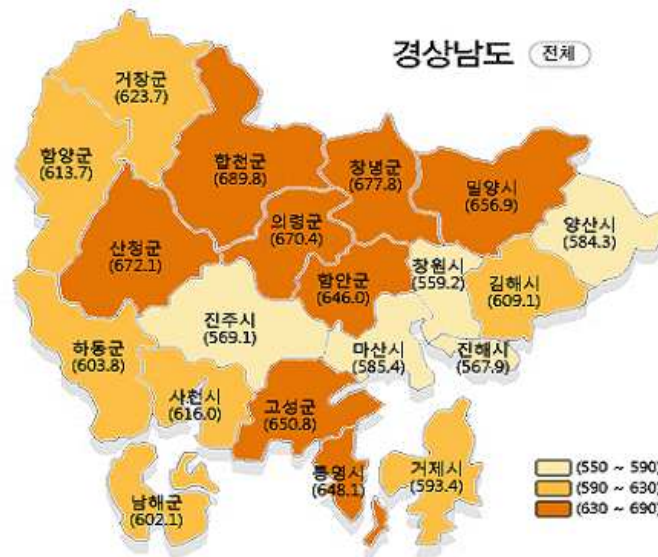
1. 현황 및 여건분석

1) 보건의료 현황

- 「2005년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 통계」 결과 전국에서 경남의 기대수명이 가장 낮고, 3대 질환(암, 심뇌혈관질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양한 형태로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해 본 결과, 합천군, 창녕군, 산청군, 의령군, 밀양시는 표준화 사망률 평균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림 3-5-1〉 16개 시도별 기대수명 현황(2008)
자료 : 2008년 경상남도 보건지표조사



〈그림 3-5-2〉 경남 시군별 연령표준화사망률(10만명당, 2001-2006년 평균)

- 읍면동별 표준화사망비(관찰자수/기대사망자수×100)를 계산한 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표준화사망비가 1이상이었던 지역은 모두 40개 읍·면·동이었으며, 이 중 29개는 농촌지역, 11개 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됨

〈표 3-5-1〉 경상남도 시군별 표준화사망률 평균 (단위 : 명/십만명)

지역명	2001년-2004년 표준화사망률 평균	지역명	2001년-2005년 표준화사망률 평균	지역명	2001년-2006년 표준화사망률 평균
창원1)	589.9	진주	580.0	진주	569.1
진주	592.9	창원1)	581.4	창원1)	570.8
양산	613.9	양산	599.1	양산	584.3
거제	620.5	거제	610.6	거제	593.4
김해	628.2	김해	617.1	남해	602.1
하동	632.4	사천	622.3	하동	603.8
사천	634.0	남해	623.3	김해	609.1
남해	646.9	함양	623.9	함양	613.7
함양	648.1	하동	625.1	사천	616.0
거창	654.8	거창	640.9	거창	623.7
고성	669.9	통영	664.6	합안	646.0
통영	670.2	합안	664.9	통영	648.1
합안	682.4	고성	667.7	고성	650.8
밀양	687.4	밀양	671.4	밀양	656.9
창녕	698.8	의령	689.1	의령	670.4
산청	708.7	산청	690.5	산청	672.1
의령	711.3	창녕	692.7	창녕	677.8
합천	727.8	합천	701.7	합천	689.8

주 : 1) 구 마산, 창원, 진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

자료 : 경상남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8 경상남도 보건지표조사'

-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외부유출 또한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도민들의 교통비, 시간비용을 비롯한 비용증가를 유발하고 지역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3-5-2〉 16개 시,도별 진료비 유출입 현황(2009)(단위 : 1,000원)

구 분	외부유입(B)	외부유출(C)	진료비 손익(B - C)
계	8,551,800,587	8,551,798,815	1,772
서울	3,010,982,974	1,221,994,256	1,788,988,718
부산	597,562,094	357,978,253	239,583,842
대구	558,135,096	219,833,725	338,301,372
인천	273,716,738	505,314,226	- 231,597,488
광주	388,407,527	221,931,286	166,476,241
대전	357,367,766	201,876,333	155,491,433
울산	102,294,795	219,513,327	- 117,218,532
경기	1,239,657,265	2,371,274,835	- 1,131,617,570
강원	189,259,675	248,814,967	- 59,555,292
충북	177,238,916	305,143,140	- 127,904,224
충남	282,852,506	525,412,141	- 242,559,635
전북	268,178,863	219,376,430	48,802,432
전남	354,241,050	460,524,322	- 106,283,272
경북	335,044,507	630,976,009	- 295,931,503
경남	381,730,730	593,726,377	- 211,995,648
제주	35,130,086	57,410,569	- 22,280,483
기타	-	190,698,619	- 190,698,61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보건의료 지원현황

- 의료기관 수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 총계 2005년 2,682개소에서 2010년 3,035개소로 2005년도 대비 의료기관 수의 증가율 13.2%로 조산원(5개소 감소)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음

〈표 3-5-3〉 의료기관 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개소, %)

		전국			경남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총계		49,566	56,244	13.5	2,682	3,035	13.2
병·의원	종합병원	290	312	7.6	21	24	14.3
	요양병원	177	849	379.7	81*	68	135.8
	일반병원	794	1,154	45.3		123	
	의원	25,412	27,334	7.6	1,377	1,445	4.9
특수병원	결핵	3	3	-	14**	1	14.3
	한센	1	1	-		-	
	정신	102	143	40.2		15	
치과병 의원	치과병원	123	188	52.9	591	11	20.3
	치과의원	12,520	14,074	12.6		700	
한방병 의원	한방병원	146	159	8.9	562	2	13.0
	한의원	9,765	11,804	20.9		633	
부속의원		187	186	- (-0.5)	9	11	22.2
조산원		46	37	- (-41.3)	7	2	- (-71.4)

주 : 부속의원 -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의료법 제35조). * 건인병원 제외, **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재활병원 포함.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2011.

- 경남 시군별 병원수를 살펴보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5-4〉 경남 시군별 의료기관 시설현황(2009년 병원수 및 병상수)

연별 시·군 별	합계1)		종합병원		병원2)		의원		특수병원3)		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의원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경남 (%)	3,057 (100)	45,764 (100)	25 (100)	8,089 (100)	121 (100)	17,413 (100)	1,483 (100)	4,862 (100)	16 (100)	6,276 (100)	60 (100)	8,897 (100)	689 (100)	25 (100)	2 (100)	89 (100)	646 (100)	49 (100)	3 (100)	9 (100)	12 (100)	55 (100)
창원	1,098	14,634	10	3,252	42	5,067	518	1,728	2	1,362	17	3,188	261	0	0	0	240	29	1	1	7	7
진주	336	5,127	4	1,667	11	1,300	154	336	3	815	5	960	90	-	1	49	67	-	-	-	1	-
통영	163	1,475	-	-	6	864	112	348	-	-	1	240	22	-	-	-	21	-	-	-	1	23
사천	103	2,600	-	-	5	1,470	51	171	2	649	2	310	23	-	-	-	20	-	-	-	-	-
김해	450	7,285	5	1,256	20	2,278	206	978	3	873	16	1,854	106	-	-	-	92	20	1	1	1	25
밀양	105	1,777	1	298	6	896	51	81	-	-	4	495	20	-	-	-	22	-	1	7	-	-
거제	181	1,855	2	562	7	816	78	298	-	-	1	179	45	-	-	-	46	-	-	-	2	-
양산	224	5,300	3	1,054	6	1,237	109	488	4	1,738	6	718	53	25	1	40	42	-	-	-	-	-
시계 (%)	2,660 (87.0)	40,053 (87.5)	25 (100)	8,089 (100)	103 (85.1)	13,928 (80.0)	1,279 (86.2)	4,428 (90.7)	14 (87.5)	5,437 (86.6)	52 (86.7)	7,944 (89.3)	620 (90.0)	25 (100)	2 (100)	89 (100)	550 (85.1)	49 (100)	3 (100)	9 (100)	12 (100)	55 (100)
의령	23	308	-	-	1	88	13	31	1	189	-	-	4	-	-	-	4	-	-	-	-	-
함안	48	484	-	-	3	421	24	33	-	-	1	30	9	-	-	-	11	-	-	-	-	-
창녕	53	1,977	-	-	2	656	27	76	1	650	4	595	6	-	-	-	13	-	-	-	-	-
고성	44	823	-	-	3	674	20	16	-	-	1	133	8	-	-	-	12	-	-	-	-	-
남해	40	253	-	-	1	135	25	23	-	-	1	95	6	-	-	-	7	-	-	-	-	-
하동	37	607	-	-	2	549	20	58	-	-	-	-	7	-	-	-	8	-	-	-	-	-
산청	25	2	-	-	-	-	13	2	-	-	-	-	5	-	-	-	7	-	-	-	-	-
함양	32	127	-	-	1	69	19	58	-	-	-	-	4	-	-	-	8	-	-	-	-	-
거창	57	478	-	-	3	283	25	95	-	-	1	100	13	-	-	-	15	-	-	-	-	-
합천	38	652	-	-	2	610	18	42	-	-	-	-	7	-	-	-	11	-	-	-	-	-
군계 (%)	397 (13.0)	5,711 (12.5)	0 (-)	0 (-)	18 (14.9)	3,485 (20.0)	204 (13.8)	434 (9.3)	2 (12.5)	839 (13.4)	8 (13.3)	953 (10.7)	69 (10.0)	0 (-)	0 (-)	0 (-)	96 (14.9)	0 (-)	0 (-)	0 (-)	0 (-)	0 (-)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1) 보건의료원이하 제외, 2) 군인병원 제외, 3)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포함.

자료 : 경남통계연보, 2010.

- 보건의료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인구를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 의사 792명, 치과의사 3,075명, 한의사 3,819명, 약사 1,98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로 나타났음
- 경남의 경우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담당하는 인구가 많아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으로 사료되며,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및 확보가 필요함

〈표 3-5-5〉 주요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인구(시도별)(단위: 명)

지역 \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전국	639	2,479	3,251	1,582
서울	456	1,691	2,525	1,268
부산	565	2,680	2,961	1,498
대구	528	2,394	2,880	1,401
인천	837	2,996	4,232	1,897
광주	534	1,844	3,319	1,411
대전	516	2,551	2,818	1,421
울산	902	2,983	3,781	2,023
경기	841	2,988	4,193	1,814
강원	663	2,546	3,381	1,634
충북	755	3,412	3,321	1,650
충남	782	2,669	3,292	1,717
전북	584	2,457	2,583	1,429
전남	700	3,129	3,476	1,603
경북	851	3,560	3,342	1,858
경남	792	3,075	3,819	1,985
제주	747	3,068	3,752	1,769

주 : 의사 -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포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 지역별로 큰 차이 보여' 2010.12.30.



〈그림 3-5-3〉 보건의료인력 분포 현황

자료 :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보건의료인력 지역별로 큰 차이 보여' , 2010.12.30.

- 지역주민의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10년 전국 보건의료기관은 0.8% 증가한 3,459개소이며, 경남의 경우, 1.7% 증가한 409개소로 나타남

〈표 3-5-6〉 보건의료기관 분포 현황(단위 : 개소, 명, %)

구분	전국			경남		
년도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총계	3,433	3,459	0.8	402	409	1.7
보건소	248	253	2.0	20	20	-
보건지소	1,280	1,294	1.1	167	169	1.2
보건진료소	1,905	1,912	0.4	215	220	2.3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1.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

-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대비 2010년 전국은 26.6% 증가한 424,309명이며, 가장 많이 증가한 인력으로는 의료기사(34.9% 증가), 다음으로 약사(31.5%)로 나타남
- 경남의 경우에는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은 26.8%로 의무기록사(52.3% 증가)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치과의사(40.0% 증가)를 들 수 있음

〈표 3-5-7〉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현황(의료인 분포현황)

구분	전국			경남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총계	335,276	424,309	26.6	19,817	25,134	26.8
의사*	63,411	79,966	26.1	3,263	4,002	22.7
치과의사	16,782	20,283	20.9	705	987	40.0
한 의사	11,915	15,235	27.9	604	801	32.6
조산사	1,200	1,048	- (-12.7)	44	47	6.8
간호사	86,299	110,803	28.4	5,184	6,638	28.1
간호조무사	90,465	109,610	21.6	5,858	7,060	20.5
의료기사	59,704	80,535	34.9	3,878	5,197	34.0
의무기록사	2,707	3,157	16.6	132	201	52.3
약사**	2,793	3,672	31.5	149	201	34.9

주 : 시도별 병원 종사자 인력수와 시도별 의원 및 조산원 종사 의료인력수를 재구성한 자료임. *의료종사자만 포함, **개업약국 약사 제외.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11. 경남통계연보, 경상남도, 2006.

- 경남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력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체 25,857명 중에서 시지역 23,311명으로 90.2%를 차지하며, 군지역 2,546명으로 9.8%로 의료인력 모두 85% 넘게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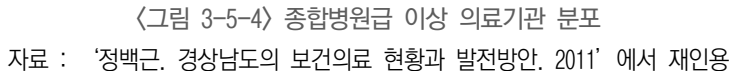
〈표 3-5-8〉 경남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현황(2009년 의료인분포 현황)

행정구역 (시군)	합 계 (명)	상근 의사	비상근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경남 (100.0)	25,857 (100.0)	3,841 (100.0)	11 (100.0)	1,164 (100.0)	811 (100.0)	17 (100.0)	6,564 (100.0)	8,395 (100.0)	4,656 (100.0)	186 (100.0)
창원시	8,639	1,290	3	360	306	3	2,515	2,208	1,818	57
진주시	3,613	721	0	116	71	4	1,504	718	437	11
통영시	881	125	0	24	22	0	193	326	172	13
사천시	918	127	0	24	21	0	190	358	185	8
김해시	3,896	494	0	137	114	6	752	1,540	781	45
밀양시	829	119	3	25	26	1	167	372	105	5
거제시	1,493	181	2	65	53	2	384	449	340	10
양산시	3,042	382	2	338	92	0	472	1,368	338	24
시 계 (%)	23,311 (90.2)	3,439 (89.5)	10 (90.9)	1,089 (93.6)	705 (86.9)	16 (94.1)	6,177 (94.1)	7,339 (87.4)	4,176 (89.7)	173 (93.0)
의령군	112	17	0	4	4	0	13	49	22	2
함안군	291	63	0	9	11	0	38	100	64	3
창녕군	534	69	1	7	19	0	125	237	64	5
고성군	317	40	0	11	13	0	38	129	82	0
남해군	222	51	0	6	7	0	22	92	41	1
하동군	227	34	0	8	9	0	37	87	49	1
산청군	69	12	0	5	8	0	2	29	13	0
함양군	162	26	0	4	8	0	9	72	42	0
거창군	406	52	0	13	16	1	84	170	67	0
합천군	206	38	0	8	11	0	19	91	36	1
군 계 (%)	2,546 (9.8)	402 (10.5)	1 (9.1)	75 (6.4)	106 (13.1)	1 (5.9)	387 (5.9)	1,056 (12.6)	480 (10.3)	13 (7.0)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자료 : 경남통계연보, 2010.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경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군 간, 동·서부 간의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경남 의료기관은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접근성과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며, 지역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가 보다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함



〈표 3-5-9〉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2010 (단위: %)

지역	계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서울	100.0	52.7	20.7	32.0	33.6	13.7	12.0	1.7
부산	100.0	50.3	16.9	33.4	30.5	19.2	17.7	1.5
대구	100.0	49.5	19.8	29.7	35.0	15.4	13.4	2.1
인천	100.0	40.4	16.1	24.3	40.0	19.5	17.6	2.0
광주	100.0	52.0	15.2	36.8	32.1	15.9	14.0	2.0
대전	100.0	54.8	22.7	32.1	33.1	12.1	9.9	2.2
울산	100.0	45.1	12.4	32.7	37.0	17.9	14.1	3.9
경기	100.0	54.0	20.3	33.7	31.5	14.5	12.5	2.0
강원	100.0	64.4	25.8	38.5	25.5	10.1	8.5	1.6
충북	100.0	45.1	13.0	32.1	41.8	13.1	9.6	3.5
충남	100.0	54.5	16.3	38.3	31.2	14.3	12.2	2.0
전북	100.0	60.1	27.9	32.2	30.0	9.9	8.8	1.1
전남	100.0	56.3	28.4	27.9	32.3	11.4	10.9	0.6
경북	100.0	51.0	18.2	32.8	34.2	14.7	13.1	1.6
경남	100.0	53.2	14.5	38.6	31.2	15.6	12.3	3.3
제주	100.0	61.1	30.1	31.0	25.8	13.2	12.4	0.8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3-5-10〉 의료서비스 만족도(병(의)원), 2010 (단위: %)

구분	계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서울	100.0	48.6	10.5	38.1	44.0	7.4	6.9	0.5
부산	100.0	45.0	9.1	35.9	43.7	11.3	10.5	0.8
대구	100.0	46.7	7.1	39.6	44.8	8.5	8.4	0.1
인천	100.0	36.0	6.8	29.2	49.9	14.1	12.7	1.4
광주	100.0	48.8	11.2	37.6	42.0	9.2	8.8	0.4
대전	100.0	48.1	12.8	35.3	38.8	13.0	12.5	0.5
울산	100.0	44.8	6.6	38.2	46.1	9.1	8.4	0.8
경기	100.0	44.5	9.3	35.3	44.8	10.6	10.1	0.5
강원	100.0	59.3	15.3	44.0	33.2	7.5	7.3	0.2
충북	100.0	48.0	11.7	36.3	43.8	8.2	7.2	1.0
충남	100.0	49.9	10.2	39.6	39.8	10.3	9.5	0.8
전북	100.0	55.8	17.7	38.2	38.0	6.1	5.2	0.9
전남	100.0	59.5	24.0	35.5	31.5	9.0	7.8	1.2
경북	100.0	49.5	13.7	35.8	43.7	6.8	6.2	0.6
경남	100.0	48.9	8.7	40.3	43.9	7.2	7.0	0.2
제주	100.0	49.8	13.4	36.4	39.7	10.5	10.0	0.6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2. 여건변화 및 전망

1) 지역 간·계층 간의 보건의료 인프라 편중 심화

- 보건의료 서비스권에서 벗어나 있는 농촌 및 산악지역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건강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건의료 및 보건정책 기반의 안정화를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2) 평생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임
- 흡연, 음주, 영양섭취 및 스트레스 등의 환경이나 생활습관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기사망은 물론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할 것임. 따라서 도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최적의 건강수준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평생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임

3) 농어촌 인구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 증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의료서비스 요구 증대

- 인구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 요양, 치료, 재활 등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증가할 것임
- 특히 대부분의 군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의 유치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임

의료보전 서비스 욕구의 다양화, 고급화

-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특정질환 전문병원, 장애인 전문병원 등 특정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4) 경남도민 보건의료비 유출 심화

- KTX 등 교통망 신설에 따른 교통발달로 인해 의료이용 유출의 심화가 예상됨
- 경남의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의료비 유출 및 기타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심화될 것임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계획목표 : 평생 건강 / 평등한 혜택

- 향후 도래할 100세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간·계층 간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격차를 개선하여,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

1)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계층 간 격차해소

■ 지역의료 보전기능 강화

- 지역 간·계층 간 발생하고 있는 건강수준의 약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의료 보전기능을 강화함
 -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지속적 추진 및 사업확대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의 다양화(기초건강관리, 지역의료거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일차 의료기능, 기초 건강관리센터, 지역 의료정보 거점으로 활용방안 모색
 - 도시지역 건강취약지역의 도시보건지소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의료 접근성 제고

- 의료 낙후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감.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긴급 구조구난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추진
 -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경남에서는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선(어선) 등을 통한 이동의료시스템(이동방문) 강화가 요구됨
- 농촌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을 통해 농촌 지역 거주민들과 농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한 독자적인 연구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농촌지역 거주자 및 농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결정요인을 연구하고 생애주기에 기반한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기술을 개발함
 - 농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중점관리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결과에 기반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필요함

2) 도민의 평생건강에 대한 인프라 구축

■ 도민 전체의 평생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건강시설 정비 구축 및 생활체육(스포츠)시설·의료시설 확충

-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질병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함

■ 환자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소, 지방의료원이 협의를 통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공동으로 정보를 생산·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만성질환관리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함

3) 의료시설 질적 수준 제고

■ 의료시설 질적 수준 향상 및 노후된 시설 정비계획 구축 및 보완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의 기반확충 및 노후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
- 관리기준 강화 및 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4) 공공 보건의료사업 양적 확충

■ 공공 보건의료사업 전달체계 강화

- 기존 경남지역 암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기능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장비, 인력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경남의 기대수명을 높이고, 공공 보건의료기관들의 의료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건의료협의체 등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경상남도의 보건의료자원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서부경남의 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임.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 존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들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상남도 정책수행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 계약을 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불균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도록 함
 - 공공 서비스 계약을 맺은 병원은 경상남도의 정책적 의료사업을 수행해야 함. 경상남도는 관련 인력, 시설, 장비를 확충해 주어야 함
 - 특히 경남은 전국 대비 보건의료 인력의 수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력확충에 대한 현실적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함

5) 도민 먹거리 안전대책 강화

■ 도민의 먹거리 안전(식품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

■ 불량 유해식품의 사전적 예방 강화

-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등 기술지원 강화,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운영 등 선제적 위해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유통식품의 안전성검사 강화, 허위 및 과대광고행위 단속 강화 등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함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정 등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급식과정에서의 안전성도 강화함

■ 음식적 위생수준의 강화

-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 강화,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위생등급 평가제 등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지도해 나가고, 도민이 참여하는 음식문화 개선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과 발생의 대응체계를 강화함

■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참여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 부정·불량식품의 합동단속반, 지도점검 등 민관이 함께 하는 먹거리 안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등 실질적인 도민의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감
- 경남도 주도의 식품안전 뉴스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지속적인 먹거리 안전을 위한 생활 속의 실천 캠페인을 시행함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제고

1. 현황 및 여건분석

1) 사회복지관 현황

- 2005년 대비 2010년 전국 사회복지관수는 391개소에서 425개소로 8.7% 증가하였으며, 경남의 경우 21개소에서 28개소로 33.3% 증가하였음

〈표 3-5-11〉 사회복지관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국			경남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계	391	425	8.7	21	28	33.3
사회복지법인	289	311	7.6	10	11	10.0
비영리법인	58	60	3.5	3	4	33.3
학교법인	22	24	9.1	1	1	-
지방자치단체	22	30	36.4	7	12	71.4
기타	-	-	-	-	-	-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06,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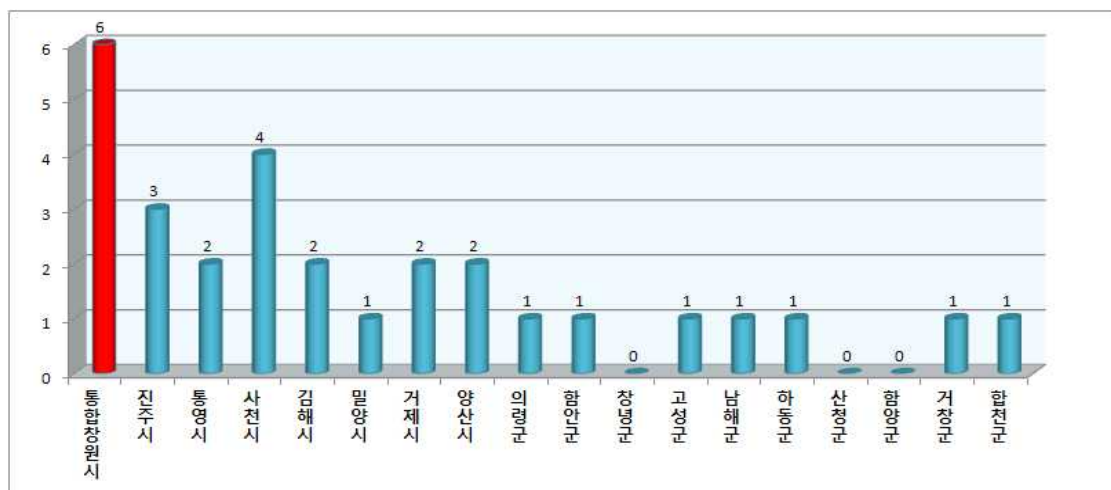
- 경상남도의 사회복지관은 시지역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아직 일부 군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경남 시군별 사회복지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9개의 사회복지관 중 시 지역에 22개로 75.9%를 차지하며, 나머지 7개가 군지역에 있음. 시 지역의 사회복지관 중 창원시가 6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천시 4개, 진주시 3개 밀양시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2개씩 있음. 군 지역의 경우 창녕군과 산청군, 함양군에는 사회복지관이 없으며, 나머지 군 지역에는 1개소씩 있음
- 사회복지관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시 지역은 1개의 복지관이 12만 5,545명을 관할한다고 보면, 군 지역은 37,187명으로 적은 수치가 나타남.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창녕군, 산청군, 함양군은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점과 농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인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표 3-5-12〉 경남 시군별 인구 및 사회복지관 현황(2010년) (단위 : 명, 개소)

행정구역	인구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당 인구
전체	3,307,201(100.0)	29(100.0)	87,965
창원시	1,092,167	6	182,027
진주시	335,466	3	111,822
통영시	140,180	2	70,090
사천시	114,063	4	28,516
김해시	506,767	2	253,383
밀양시	109,419	1	109,419
거제시	231,992	2	115,996
양산시	266,205	2	133,103
시계(%)	2,796,259(84.6)	22(75.9)	125,545
의령군	29,871	1	29,871
함안군	66,992	1	66,992
창녕군	62,310	0	-
고성군	57,251	1	57,251
남해군	49,872	1	49,872
하동군	54,322	1	54,322
산청군	35,617	0	-
함양군	41,148	0	-
거창군	63,174	1	63,174
합천군	50,385	1	50,385
군계(%)	510,942(15.4)	7(24.1)	37,187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자료 : 2011년 11월 주민등록인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1.11월 기준.



〈그림 3-5-5〉 경남 시군별 인구 및 사회복지관 현황(2010년) (단위 : 개소)

2)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 시·군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표 3-5-13〉 경남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2010년) (단위 : 개소, %)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경남	29(100.0)	210(100.0)	189(100.0)	29(100.0)	101(100.0)
창원	7	49	58	7	32
진주	3	13	16	2	9
통영	2	8	9	1	7
사천	3	12	8	1	3
김해	2	22	17	4	10
밀양	2	9	8	3	5
거제	2	5	17	2	5
양산	1	15	9	1	6
시계	22(75.9)	133(63.3)	142(75.1)	21(72.4)	77(76.2)
의령	1	7	4	1	1
함안	1	10	6	1	2
창녕	-	6	5	-	3
고성	1	8	6	3	2
남해	1	5	7	1	3
하동	1	6	2	-	4
산청	-	11	5	-	2
함양	-	9	3	1	2
거창	1	8	6	-	3
합천	1	7	3	1	2
군계	7(24.1)	77(36.7)	47(24.9)	8(27.6)	24(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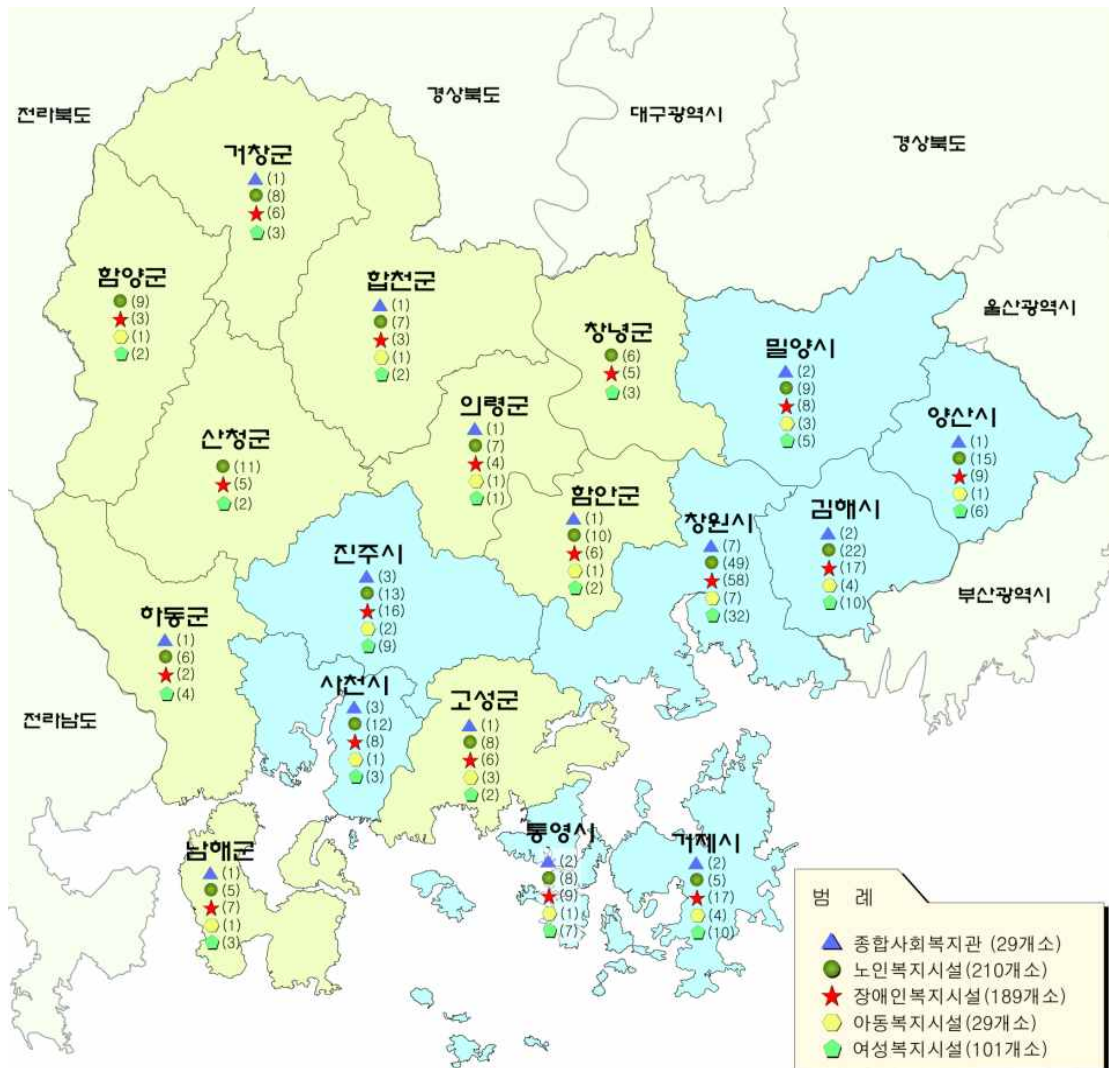
주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종합복지관 포함.

장애인복지시설 - 복지센터, 점자도서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복지관, 중증요양시설, 장애유아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거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아동복지시설 - 보호치료, 양육시설, 전용시설, 아동상담소, 개인양육시설 포함.

여성복지시설 - 성폭력상담소, 여성교육기관,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법률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자료 : 경상남도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검색, 2011.



〈그림 3-5-6〉 경남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3) 노인복지 현황

-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2018년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경남의 경우 2015년 고령사회, 2024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평균보다 빠른 노령화가 예상됨

〈표 3-5-14〉 경남의 노인인구(65세이상) 변화추이(단위: 천명, %)

년도	1980	1990	1994	1998	2000	2005	2008	2010	2015	2020	2030
전국인구	38,124	42,869	44,642	46,287	47,008	48,138	48,607	48,875	49,277	49,326	48,635
노인인구	1,456	2,195	2,542	3,069	3,395	4,367	5,016	5,357	6,381	7,701	11,811
비율	3.8	5.1	5.7	6.6	7.2	9.1	10.3	11.0	12.9	15.6	24.3
경남인구	2,746	2,776	2,886	3,000	3,036	3,108	3,131	3,141	3,142	3,124	3,076
노인인구	132	179	206	246	269	324	366	384	440	520	792
비율	4.8	6.4	7.2	8.1	8.9	10.2	11.4	12.2	14.0	16.6	25.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을 바탕으로 재구성.

- 2010년 기준 경상남도의 인구 고령화율은 11.8%로 대부분 군 단위 지역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경상남도의 고령화률을 살펴보면, 의령군, 함천군, 남해군이 30%를 넘어섰음. 주목할 점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의 고령화률이 높았으며, 8개 시 평균은 9.3%인데 비해, 군 지역의 경우 평균 25.5%로, 함안군을 제외하고 9개 군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음

〈표 3-5-15〉 경남 노인인구 현황(2010.12.31기준)

구 분	총인구수	노인인구수	구성비(%)
창원시	1,090,181	88,196	8.1
진주시	335,037	38,938	11.6
통영시	140,297	16,655	11.9
사천시	114,148	17,904	15.7
김해시	503,348	36,178	7.2
밀양시	110,479	21,681	19.6
거제시	228,355	16,475	7.2
양산시	260,239	22,794	8.8
8개시 평균	2,782,084	258,821	9.3
의령군	30,162	9,167	30.4
함안군	67,207	12,232	18.2
창녕군	61,714	15,187	24.6
고성군	57,231	13,102	22.9
남해군	49,328	14,984	30.4
하동군	51,509	13,364	25.9
산청군	35,591	10,432	29.3
함양군	41,197	11,323	27.5
거창군	63,421	14,083	22.2
합천군	51,092	15,912	31.1
10개군 평균	508,452	129,786	25.5
합계	3,290,536	388,607	11.8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 노인복지시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중심으로 쏠림현상을 엿볼 수 있음

〈표 3-5-16〉 노인복지시설 현황(단위 : 개소)

종 류	시 설	전국		경남	
		2010		2010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합계		69,237	163,136	7,346	10,151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 계	397	17,270	14	1,083
	양로시설	300	11,906	12	1,065
	노인공동생활가정	75	618	2	18
	유료노인복지주택	22	4,746	-	-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3,852	131,074	200	8,280
	노인요양시설	2,429	107,506	162	7,36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346	11,361	35	288
	노인전문병원	77	12,207	3	628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62,469	-	6,967	-
	노인복지관	259	-	16	-
	경로당	60,737	-	6,867	-
	노인교실	1,464	-	83	-
	노인휴양소	9	-	1	-
재가노인 복지시설	소 계	2,496	14,792	165	788
	방문요양서비스	1,118	-	73	-
	주야간보호서비스	786	14,086	47	723
	단기보호서비스	67	706	5	65
	방문목욕서비스	525	-	40	-

주 :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 08 및 ' 07년에는 사군구 조사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명이 거주가능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 08년 노인복지주택 세대수는 2,596세대, ' 07년 2,012세대임)

자료 :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11.

4) 장애인복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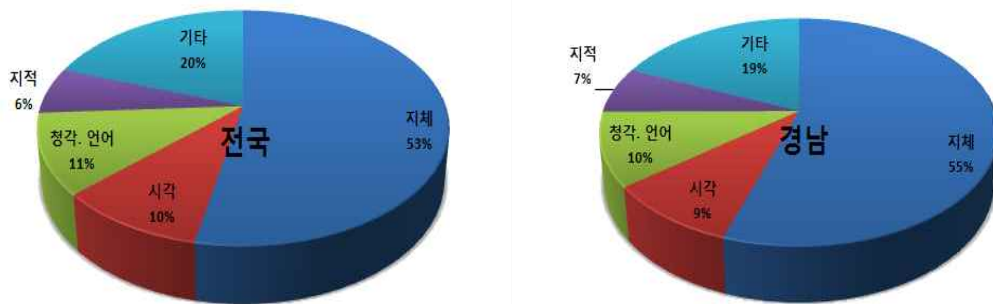
- 장애종류별로 살펴보면, 전국 2,517,312명(2005년도 대비 41.6% 증가) 중 지체장애는 1,337,722명으로 2005년 대비 39.5% 증가하였고, 시각장애 249,259명(32.5% 증가), 청각언어장애 277,610명(59.3% 증가), 지적장애 161,249명(27.2% 증가), 기타 491,472명(49.4% 증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남의 경우, 전체 180,880명(42.0% 증가) 중 지체장애 99,800명(40.0% 증가), 시각장애 16,793명(34.4% 증가), 청각·언어장애 18,909명(52.1% 증가), 지적장애 11,845명(28.6% 증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복지의 문제점은 생계 및 경제적 어려움, 장애인 직업재활, 의료재활의 서비스 결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들 수 있음

〈표 3-5-17〉 장애인등록 현황(단위: 명)

구 분	전국			경남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계	1,777,400	2,517,312	41.6	127,411	180,880	42.0
지체	959,133	1,337,722	39.5	71,518	99,800	40.0
시각	188,172	249,259	32.5	12,493	16,793	34.4
청각언어	174,302	277,610	59.3	12,432	18,909	52.1
지적	126,764	161,249	27.2	9,211	11,845	28.6
기타	329,029	491,472	49.4	21,757	33,533	54.1

주 : 기타;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에 대한 장애인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등록장애인수-장애등급별



〈그림 3-5-7〉 전국 및 경남의 장애인 장애종류 비교

〈표 3-5-18〉 경남 시군별 장애등급별 현황(2009년)(단위: 명)

연별 및 시·군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9	175,198 (100.0)	15,144 (100.0)	27,456 (100.0)	30,319 (100.0)	25,659 (100.0)	37,976 (100.0)	38,644 (100.0)
창원시	48,842	3,820	7,245	8,166	6,641	11,242	11,728
진주시	16,819	1,614	2,840	2,779	2,459	3,578	3,549
통영시	7,438	705	1,052	1,255	1,217	1,742	1,467
사천시	7,260	663	1,225	1,243	1,108	1,595	1,426
김해시	21,754	1,821	3,367	3,969	2,942	4,204	5,451
밀양시	8,281	671	1,340	1,695	1,253	1,617	1,705
거제시	10,418	991	1,511	1,891	1,331	2,413	2,281
양산시	10,726	1,026	1,630	2,034	1,525	1,992	2,519
시계 (%)	131,538 (75.1)	11,311 (74.7)	20,210 (73.6)	23,032 (76.0)	18,476 (72.0)	28,383 (74.7)	30,126 (78.0)
의령군	2,971	336	517	496	489	636	497
함안군	4,963	429	844	803	770	1,114	1,003
창녕군	4,972	410	800	871	785	1,048	1,058
고성군	4,695	389	768	828	754	1,039	917
남해군	4,825	408	741	743	955	1,076	902
하동군	4,834	415	797	870	772	1,056	924
산청군	3,383	382	635	514	535	731	586
함양군	3,579	301	629	582	601	805	661
거창군	4,760	343	739	789	749	1,099	1,041
합천군	4,678	420	776	791	773	989	929
군계 (%)	43,660 (24.9)	3,833 (25.3)	7,246 (26.4)	7,287 (24.0)	7,183 (28.0)	9,593 (25.3)	8,518 (22.0)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자료 : 경남통계연보, 2010.

- 등록장애인 수는 미약하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임. 1997년 1.0%에서 2000년 들어 2.1%, 2010년 5.8%로 증가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

〈표 3-5-19〉 경남의 등록장애인 수 변화추이(단위: 천명, %)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전국인구	46,684	16,991	47,335	47,732	48,021	48,229	48,583	48,991	49,540	49,773	50,515
장애인구	425	527	697	958	1,134	1,294	1,610	1,967	2,246	2,429	2,517
비율	0.9	3.1	1.5	2.0	2.4	2.7	3.3	4.0	4.5	4.9	5.0
경남인구	2,975	3,000	3,020	3,036	3,047	3,069	3,100	3,117	3,131	3,137	3,141
장애인구	30	35	47	64	77	90	114	141	163	175	181
비율	1.0	1.2	1.6	2.1	2.5	2.9	3.7	4.5	5.2	5.6	5.8

자료 : 보건복지자료실-연도별 장애인등록현황, 경남통계-연도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년도.

- 장애시설(생활시설)의 2005년도 대비 2010년도 증가율은 111.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표 3-5-20〉 장애시설 현황(생활시설을 중심으로)(단위: 개소)

구분	전국			경남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생활시설	265	452	70.6	13	28	115.4

자료 :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3-5-21〉 경남 장애복지시설 현황(2009년)(단위: 개소)

시군별	갯수
경남(100.0)	24(100.0)
창원시	4
진주시	1
통영시	1
사천시	1
김해시	3
밀양시	1
거제시	3
양산시	2
시계(%)	16(66.7)
의령군	1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1
남해군	1
하동군	1
산청군	2
함양군	-
거창군	1
합천군	1
군계(%)	8(33.3)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자료 : 경남통계연보, 2010.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2005년도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율을 보면, 경남은 일반 수급자에 비해 시설수급자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전국 4.5% 증가, 경남 15.1% 증가)

〈표 3-5-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단위 : 가구, 명)

구분		전국			경남		
년도		2005	2010	증가율	2005	2010	증가율
수급자계	가구	809,745	878,799	8.5	61,382	63,004	2.7
	인원	1,513,352	1,549,820	2.4	107,186	104,797	-2.2
일반수급자	가구	809,745	878,799	8.5	61,382	63,004	2.7
	인원	1,425,684	1,458,198	2.3	101,646	98,419	-3.2
시설수급자수		87,668	91,622	4.5	5,540	6,378	15.1

자료 : 경상남도 주요통계.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표 3-5-23〉 경남 시군별 저소득층 현황(2009)(단위 : 가구, 명)

행정구역 (시군)	가구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원	인원	가구	인원	시설 수	인원	가구	인원
경남 (100.0)	63,227 (100.0)	107,013 (100.0)	61,578 (100.0)	98,214 (100.0)	130 (100.0)	6,128 (100.0)	1,649 (100.0)	2,671 (100.0)
창원시	13,308	22,423	13,064	20,604	28	1,443	244	376
진주시	6,863	12,244	6,790	11,693	6	434	73	117
통영시	3,751	6,358	3,720	6,083	6	234	31	41
사천시	3,513	5,678	3,397	5,210	5	273	116	195
김해시	7,870	14,001	7,493	12,832	12	570	377	599
밀양시	3,437	5,506	3,349	5,102	7	249	88	155
거제시	2,622	4,662	2,582	4,081	8	503	40	78
양산시	3,720	6,840	3,606	6,261	12	395	114	184
시계 (%)	45,084 (71.3)	77,712 (72.6)	44,001 (71.5)	71,866 (73.2)	84 (64.6)	4,101 (66.9)	1,083 (65.7)	1,745 (65.3)
의령군	1,131	1,945	1,112	1,608	4	311	19	26
함안군	2,057	3,209	2,040	3,133	3	48	17	28
창녕군	2,278	3,356	2,262	3,293	3	43	16	20
고성군	1,516	2,602	1,379	1,958	10	417	137	227
남해군	1,861	2,944	1,733	2,565	4	176	128	203
하동군	2,178	3,507	2,136	3,322	2	130	42	55
산청군	1,544	2,599	1,497	2,244	6	281	47	74
함양군	1,618	2,672	1,580	2,239	7	340	38	93
거창군	2,053	3,392	1,951	3,144	2	72	102	176
합천군	1,907	3,075	1,887	2,842	5	209	20	24
군계 (%)	18,143 (28.7)	29,301 (27.4)	17,577 (28.5)	26,348 (26.8)	46 (35.4)	2,027 (33.1)	566 (34.3)	926 (34.7)

주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시 합계.

자료 : 경상남도 주요통계. 2010,

2. 여건변화 및 전망

(1) 경남 지역내 복지서비스 불균형 심화 및 복지시설의 역할 전환

- 경남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편중화, 군 지역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 보다는 복지시설의 역할 및 기능다양화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복지시설을 거점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임

(2)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 복지는 성장 뒤에 따라오는 보상이 아닌, 성장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안전장치이자 새로운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필요조건이며,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복지는 지속불가능함
- 사회적 양극화,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요구됨

(3)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계층의 다양한 욕구증대

- 일에 대한 유동적 선택의 증가와 함께 노동의 유형과 질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 연령기반을 중심으로 한 은퇴시스템이 아닌 유연한 삶의 방식에 맞는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또한, 은퇴 후 삶의 여가문화와 인생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이며 생활과 일자리 측면에서 고용가능성의 유지가 중요함. 근로연수를 늘리고 노인계층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체계가 요구됨

(4)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 빈곤층만을 위한 잔여적(선택적) 복지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임
- 사회복지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문화, 교육, 관광 등의 제분야의 정책이 복지와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며, 복지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5)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 및 복지수요의 다양화·고급화

- 일방적인 급여와 제공이 아닌, 개인 스스로가 변화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예방적 차원의 복지가 필요함
- 연령과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복지행정체계가 요구됨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다함께 누리는 체감복지 강화

- 빈곤층만을 위한 잔여적(선택적) 복지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편중화, 군 지역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개선과 복지시설의 역할·기능 다양화 추진

(1) 도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제도의 내실화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 지원 및 여건 조성
 -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기본생활 보장
- 경남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후평가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경남 도민의 복지체감도가 제고됨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정책
 -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며 복지행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 복지행정을 시스템화 해야 함. 사업의 대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실제로 원하는 결과가 얻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점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 신규 복지시책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성 검토가 요구됨

(2)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친화형 복지체계 구축

-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지역사회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노인 지원기관 발굴 및 구축사업 실시
 - 노인정보화 교육 실시를 통한 취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발굴
- 연령 다양성 확보 및 노인에 대한 인식 및 새로운 역할이 정립되어야 하며 건강장수시대에 맞는 일에 대한 문화,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노인 생활문화 지원 사업 발굴
 - 지역사회와 밀착된 노인 문화, 여가교육 사업 실시
 - 실버문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 경남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노인친화적 도시 구축이 필요하며 은퇴자의 자원봉사 참여 및 전직지원 시스템 기반 확충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기반 구축

- 노인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에 따른 활동보조금 제공
- 노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 노인 분야별 전문가 육성
- 은퇴자에 재교육을 통한 전문직종 자문위원회 구성

(3)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및 특성화

-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시설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 부재한 지역에서는 인접지역과의 연계 및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시설 간 대상자·재원 관리 DB구축 협력 및 강화
 - 각 지역 복지시설들 간의 간담회 실시(서비스 제공 공유, 발굴, 연계)
- 도농복합지역 및 농어촌지역의 복지욕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만이 해결대안은 아니며, 효율적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농촌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지속
 - 농촌 통합지원 정책 효율화 모색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 각 대상자에 따른 센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설치

(4)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저소득층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속
 - 저소득 주거복지 정책 강화
-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화
 - 가족통합서비스 개발
 -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지원 사업 개발(1인가구, 편부모가구, 조부모가구 등)
 -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및 연계기관들을 구축하는 사업 실시, 지자체 운영기관을 지정

(5) 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 지속가능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사업 발굴 및 지속
 -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턴 채용 등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 장애인 고용 사업장 인센티브제(세금감면) 확대

-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강화
 - 고령 장애인들의 생활비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 지원(현금, 현물) 법적 제도 마련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공공기관 및 문화공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 교통권(저상버스, 장애인전용택시) 확대보장 및 가정내 장애인 응급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전용 재활전문병원 확충
- 사회적 편견을 도모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지속
 -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속
 - 장애인 차별자 법적 처벌 활성화(강화)

(6)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연계를 통한 전달체계 강화

-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구축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강화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자원구축, 자원발굴 활성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한 자원발굴, 등록 활성화 및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실시
 - 대상자에 맞는 사례 관리사업 강화를 위한 민관기관들의 협력체계 체결
- 민·관 공동의 지역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마련
 - 희망복지지원단 등 민간자원 및 자원봉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 활용

(7) 재정안전성 확보

-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 지향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대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재원에 대한 계획 필요
 - 예산절감을 통한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며, 세금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정책의 신뢰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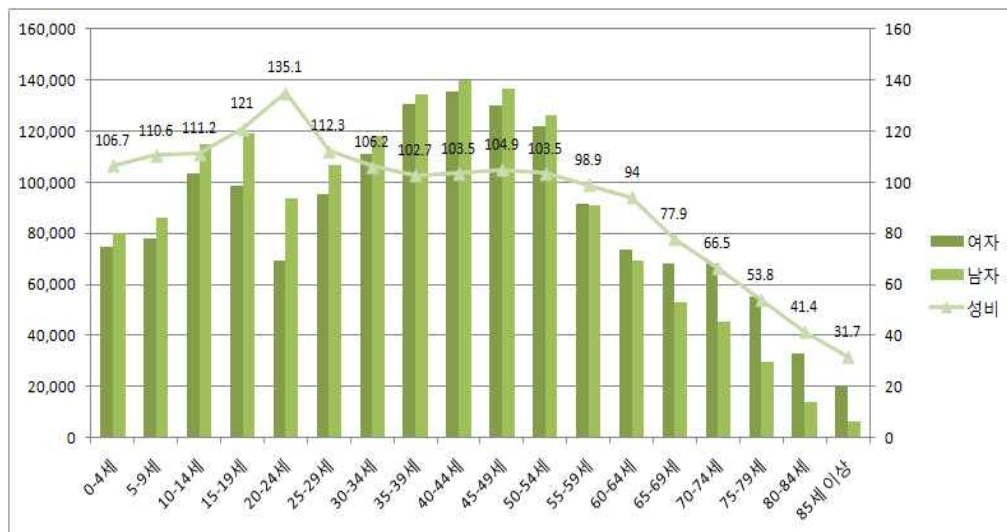
제3절 여성·가족친화 지역환경 구축

1. 현황 및 여건분석

1) 지역 여성 현황

■ 경남 여성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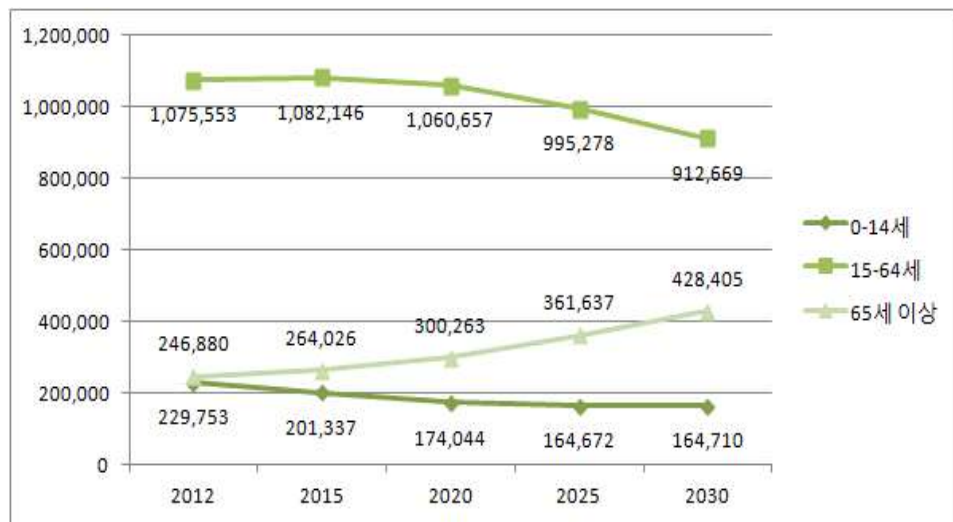
- 경남의 여성인구는 2010년 연령별 성비를 보면 20세~24세가 135.1로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고 있음. 55세 이후 성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짐
- 특히, 80세 이후 여성 비율은 남성의 2배 이상임



〈그림 3-5-8〉 연령별 인구 및 성비(2010)(단위 : 명, 여성100명당 남성 수)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 65세 이상 여성인구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246,880명인 65세 이상 여성인구는 2030년 428,405명으로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15-64세 인구는 2012년 1,075,553명에서 2030년 912,669명으로 162,884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0-14세 인구는 2012년 229,753명에서 2030년 164,710명으로 65,043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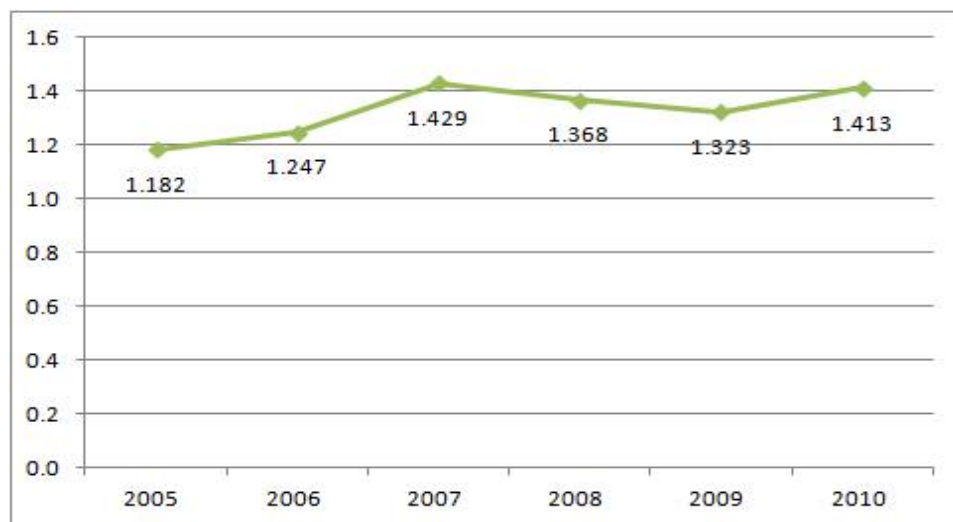


〈그림 3-5-9〉 여성의 장래추계인구(2012-2030)(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합계 출산율

- 최근 합계출산율을 보면 2005년 1.182, 2006년 1.247, 2007년 1.4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08년에는 1.368, 2009년 1.323으로 감소하다 2010년 다시 1.413으로 증가함
- 5년 간을 비교해 보면 2010년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과 비교하면 0.231 증가하였음. 2007년이 높게 나타난 것은 황금돼지해가 좋다는 사회적 통념에 의한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1.429로 5년(2005~2010)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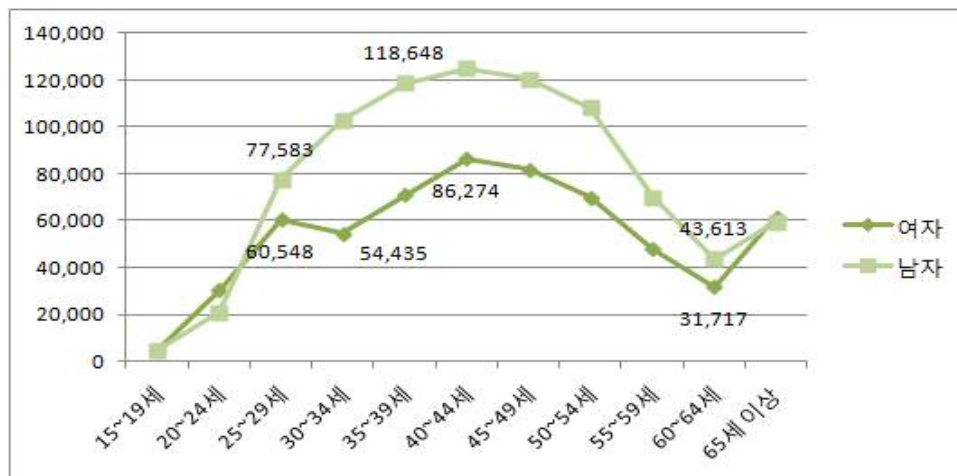


〈그림 3-5-10〉 합계출산율 추이(2005~2010)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단위:명)

■ 경남 여성경제활동

- 경남의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639천명이었고 2008년 648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655천명, 2010년 652천명으로 감소함
- 2005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8%에서 2007년 50.1%까지 감소하다 2008년 51.0%으로 소폭 증가한 후 2009년 50.2%, 2010년 49.3%로 감소함
- 2010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652천명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인구 924천명 보다 272천명 적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3%로 남성의 72.7%보다 23.4%p 적음
- 2010년 경남 여성의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25~29세 60,548명으로 증가했다가 30~34세 54,435명으로 감소하고 35세부터 다시 증가하여 40~44세가 86,274명으로 가장 많음
- 여성들이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결혼 및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육아가 끝나면서 복귀하는 M자형 곡선을 보여줌
- 남성의 경우 40~44세 구간의 취업자수가 118,64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45세 이후 감소하는 종 모양을 보임



〈그림 3-5-11〉 연령별 취업자(2010)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연보.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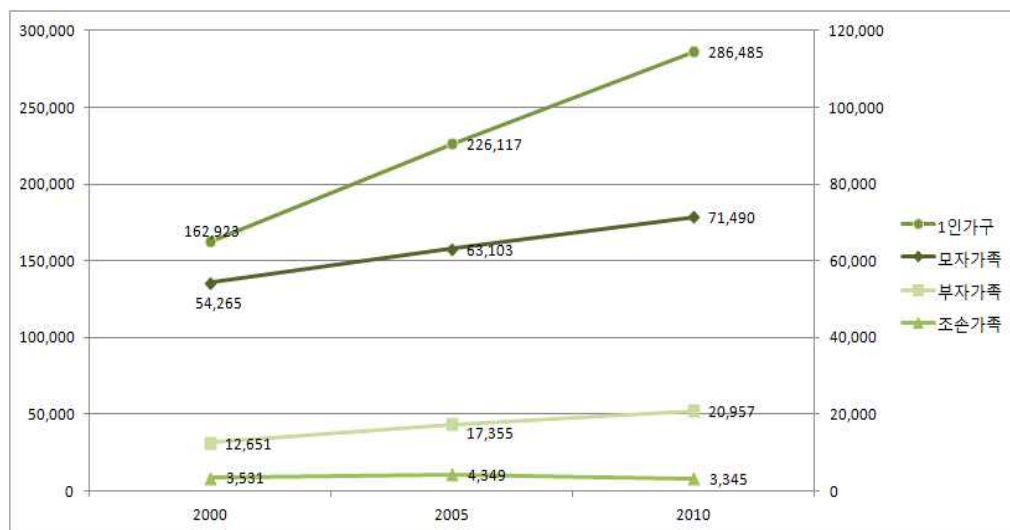
■ 가족형태의 다양화

- 경남의 총 가구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보여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2000년 162,923가구였던 1인가구가 2010년 286,485가구로 10년새 1.8배 가량 증가함
-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족의 비율 역시 증가하여 2000년 54,265가구에서 71,490가구로 1.3배 가량 증가함

〈표 3-5-24〉 세대구성별 가구(단위: 가구)

구 분	2000		2005		2010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총가구수	14,311,807	951,393	15,887,128	1,056,007	17,339,422	1,151,172
한부모가족	1,123,854	66,916	1,369,943	80,458	1,594,138	92,447
모자가족	903,857	54,265	1,083,020	63,103	1,246,690	71,490
부자가족	219,997	12,651	286,020	17,355	1,347,448	20,957
조손가족	45,225	3,531	58,101	4,349	51,159	3,345
1인가구	2,224,433	162,923	3,170,675	226,117	4,142,165	286,485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그림 3-5-12〉 경남 세대구성별 가구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단위 : 가구)

외국인 및 국제결혼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함. 경남의 외국인 인구도 2000년 0.46%에서 2010년 1.72%로 증가
- 2010년 경남의 시·군 중 거제시와 함안군이 각각 인구의 3.42%, 3.75%가 외국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하동군과 거창군은 인구의 0.67%만이 외국인으로 비율이 가장 낮음

〈표 3-5-25〉 외국인 추이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244,172 (0.51)	267,630 (0.55)	287,923 (0.59)	437,014 (0.90)	469,183 (0.96)	485,477 (0.99)	632,490 (1.27)	765,429 (1.53)	854,007 (1.69)	870,636 (1.72)	918,917 (1.79)
경남	14,261 (0.46)	17,621 (0.56)	19,057 (0.61)	23,173 (0.73)	24,920 (0.79)	26,679 (0.84)	35,953 (1.12)	42,389 (1.31)	51,707 (1.58)	53,222 (1.61)	57,718 (1.72)
창원시	5,567 (0.51)	6,740 (0.61)	6,823 (0.62)	6,700 (0.61)	7,231 (0.66)	7,712 (0.70)	10,644 (0.97)	11,780 (1.08)	12,701 (1.16)	12,230 (1.12)	13,668 (1.24)
진주시	714 (0.21)	763 (0.22)	873 (0.26)	1,045 (0.31)	1,131 (0.33)	1,494 (0.44)	2,083 (0.62)	2,500 (0.75)	3,015 (0.90)	3,045 (0.91)	3,438 (1.02)
통영시	251 (0.18)	298 (0.22)	474 (0.35)	519 (0.39)	654 (0.49)	634 (0.48)	1,174 (0.87)	1,616 (1.19)	2,516 (1.81)	3,154 (2.24)	3,335 (2.32)
사천시	217 (0.18)	250 (0.21)	351 (0.30)	504 (0.44)	547 (0.48)	637 (0.57)	932 (0.82)	1,217 (1.07)	1,654 (1.44)	1,830 (1.60)	2,075 (1.79)
김해시	3,453 (0.99)	3,381 (0.95)	3,644 (0.93)	5,526 (1.34)	5,644 (1.30)	5,779 (1.29)	8,197 (1.77)	10,129 (2.13)	12,453 (2.54)	12,643 (2.50)	13,968 (2.70)
밀양시	362 (0.29)	394 (0.32)	466 (0.39)	699 (0.59)	737 (0.63)	684 (0.60)	822 (0.73)	978 (0.87)	1,052 (0.94)	942 (0.85)	993 (0.89)
거제시	1,047 (0.59)	1,516 (0.84)	1,862 (1.01)	2,642 (1.40)	3,293 (1.70)	3,874 (1.94)	4,409 (2.14)	5,430 (2.54)	7,644 (3.40)	8,067 (3.45)	8,080 (3.42)
양산시	890 (0.46)	2,090 (1.03)	2,346 (1.13)	2,847 (1.33)	2,670 (1.23)	2,644 (1.18)	3,148 (1.37)	3,343 (1.42)	3,840 (1.56)	3,820 (1.50)	4,095 (1.55)
의령군	174 (0.50)	206 (0.61)	217 (0.66)	244 (0.74)	310 (0.95)	261 (0.83)	305 (0.96)	340 (1.07)	461 (1.48)	469 (1.51)	573 (1.86)
함안군	515 (0.79)	686 (1.04)	634 (0.98)	849 (1.32)	1,016 (1.61)	980 (1.57)	1,407 (2.17)	1,744 (2.62)	2,318 (3.39)	2,344 (3.40)	2,615 (3.75)
창녕군	158 (0.22)	168 (0.24)	169 (0.24)	325 (0.48)	328 (0.49)	458 (0.70)	622 (0.97)	683 (1.09)	778 (1.25)	833 (1.34)	1,037 (1.65)
고성군	247 (0.39)	286 (0.46)	297 (0.49)	332 (0.56)	336 (0.58)	347 (0.61)	518 (0.93)	670 (1.20)	1,081 (1.90)	1,454 (2.48)	1,349 (2.30)
남해군	113 (0.19)	123 (0.21)	221 (0.39)	199 (0.36)	199 (0.37)	223 (0.43)	352 (0.69)	397 (0.72)	460 (0.90)	523 (1.03)	561 (1.12)
하동군	51 (0.09)	72 (0.12)	61 (0.11)	100 (0.17)	107 (0.19)	115 (0.22)	172 (0.32)	231 (0.41)	250 (0.46)	291 (0.56)	350 (0.67)
산청군	37 (0.09)	52 (0.13)	65 (0.17)	97 (0.26)	114 (0.31)	166 (0.46)	234 (0.65)	287 (0.81)	312 (0.88)	318 (0.90)	309 (0.86)
함양군	167 (0.36)	166 (0.37)	158 (0.36)	160 (0.37)	148 (0.35)	169 (0.41)	305 (0.74)	343 (0.84)	370 (0.91)	446 (1.09)	418 (1.00)
거창군	111 (0.16)	139 (0.20)	120 (0.18)	148 (0.22)	154 (0.23)	170 (0.26)	259 (0.40)	311 (0.48)	369 (0.58)	405 (0.64)	430 (0.67)
합천군	187 (0.30)	291 (0.49)	276 (0.48)	237 (0.39)	301 (0.52)	332 (0.57)	370 (0.67)	390 (0.70)	433 (0.77)	408 (0.76)	424 (0.82)

자료 : 통계청 KOSIS, 외국인등록인구(2000~2010)

-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과 경남은 각각 98.8%, 87.1% 증가하였으며, 각 시·군 중에는 산청군이 348.6%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2005년에서 2010년 사이는 전국은 89.3% 증가하였고, 경남은 116.3% 증가. 시·군 중에는 통영시

가 426.0%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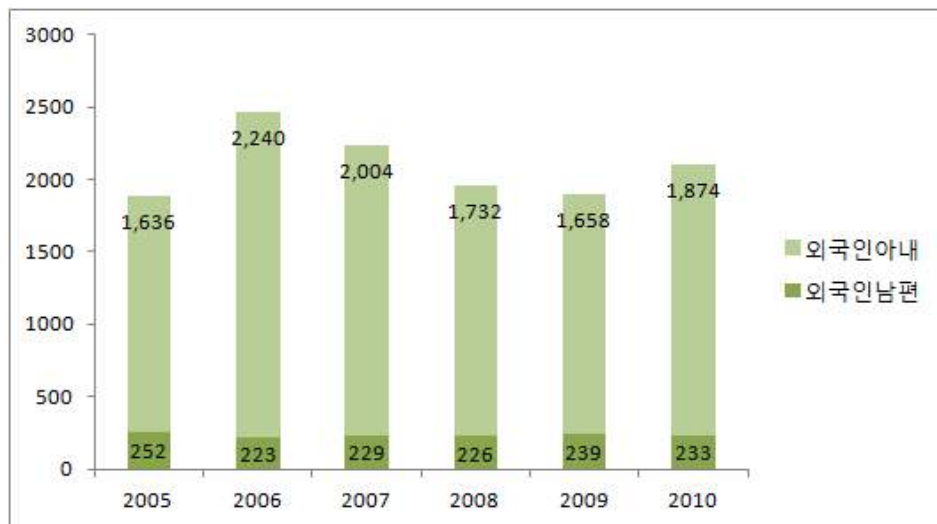
- 지난 10년 동안 전국은 외국인 수가 674,745명(276.3%) 증가하였으며, 경남은 43,457명(304.7%) 증가함. 시·군 중에는 통영시가 1228.7%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표 3-5-26〉 외국인 수 증가율 (단위 : 명/%)

구 분	2000-2005 증가율	2005-2010 증가율	2000-2010	
			증가수	증가율
전국	98.8	89.3	674,745	276.3
경남	87.1	116.3	43,457	304.7
창원시	38.5	77.2	8,101	145.5
진주시	109.2	130.1	2,724	381.5
통영시	152.6	426.0	3,084	1228.7
사천시	193.5	225.7	1,858	856.2
김해시	67.4	141.7	10,515	304.5
밀양시	89.0	45.2	631	174.3
거제시	270.0	108.6	7,033	671.7
양산시	197.1	54.9	3,205	360.1
의령군	50.0	119.5	399	229.3
함안군	90.3	166.8	2,100	407.8
창녕군	189.9	126.4	879	556.3
고성군	40.5	288.8	1,102	446.2
남해군	97.3	151.6	448	396.5
하동군	125.5	204.3	299	586.3
산청군	348.6	86.1	272	735.1
함양군	1.2	147.3	251	150.3
거창군	53.2	152.9	319	287.4
합천군	77.5	27.7	237	126.7

자료 : 통계청 KOSIS, 외국인등록인구(2000~2010). 증가율 산출.

- 2005년 경남의 국제결혼건수는 1,888건이며 이 중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건수는 1,636건으로 86.7%임. 2010년 경남의 국제결혼건수는 2,107건이며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건수는 1,874건으로 88.9%임



〈그림 3-5-13〉 국제결혼건수(2005-2010)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단위:건)

2. 여건변화 및 전망

(1) 지역여건 전망

■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도전 필요

- 2011년 전국 16개 시도별 성평등수준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남도 성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국의 최하위로 보고됨(2011,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소외여성 사회통합 등 4개 영역에서 경남은 전국과 비교해서 하위 점유
- 따라서, 경남여성의 성평등을 위한 정책과 지역사회의 변화가 요구됨

■ 여성경제활동 제고 및 여성인적자원개발 요구 증대

- 경남의 여성경제활동인구는 50% 내외로 남성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20~25%가량 낮은 편
- 또한, 연령별 취업자 곡선도 M자형으로 혼인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40세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려는 여성의 요구 증가
- 따라서, 여성경제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 가족형태의 다양화 지속

-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증가. 또한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다문화가족 급증

- 경남의 국제결혼건수는 2005년도에 비해 2010년도는 11.6% 증가했으며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건수는 14.5% 증가
-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수도 증가하고 있음. 다문화가족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2010년 969개소에서 2011년 1,245개소로 28.5% 증가하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가족의 아동 수도 2010년 2,770명에서 2011년 3,597명으로 29.9%나 증가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출신 배우자의 적응과 취업,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

■ 안심할 수 있는 보육,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심 증대

- 일-가정 양립지원과 안전한 보육지원, 보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요구 증가
-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학교-경찰청 연계 및 공조체계 시급

(2) 정부정책 변화

■ 여성능력 제고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확대

-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적자원 고갈과 부양 부담 급증으로 국가 지속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잠재된 여성인력 부각
-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욕구와 함께 고학력, 청년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마련 필요

■ 여성, 가족이 안전한 지역환경 구축

- 여성·아동·권익문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으로 범죄에 대한 엄벌 및 피해자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지속될 전망
-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감소하였으나 신변중 업소, 해외 성매매 발생 등 성매매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또한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처벌강화 등 엄정한 법집행 요구

■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환경 조성

- 보육지원 시스템 내실화로 국민체감도 향상. 지역사회 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
- 지식기반사회 진전, 글로벌 경쟁 보편화,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강화 시급
- 인터넷 이용 일상화, 신·변종 유해업소 확산, 학교폭력 심각화 등으로 청소년 보호 및 사회환경

개선 요구

■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 가족기능 강화
 - 경제위기로 약화되기 쉬운 가족기능의 역량강화 주력
 - 가족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서비스 제공
 -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으로부터 이탈된 요보호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 마련 서비스 지원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가족지원 네트워크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유도 및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촉진
 -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3) 지역정책 변화

■ 여성가족정책관실 설치로 여성·가족 정책 활성화 의지 확대

- 경남은 2011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관련 직제를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가족정책관실로 개편
- 여성, 청소년, 출산, 보육, 다문화 등 여성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경남, 함께하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의 다각화·통합화 도모

■ 출산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 지원

- 저출산 시대에 출산지원 확대 및 모성·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제고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부모 보육참여 장려, 보육시설 안전점검, 교체 등 제도 강화
- 보육료 지원확대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확보 주력
- 청소년 역량증진과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노력

■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안정적 정책지원

-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확대
-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지원 : 방문교육사업, 복지향상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사업 실시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여성·가족친화 지역환경 구축

-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점진적인 증가,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사회전반의 여성과 다문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성 및 가족환경 전반에 대한 지역환경의 개선정책 추진

1) 정책실효성 제고

■ 여성정책의 실효성·체감도 제고

-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정책관의 위상 제고를 통한 여성정책 실효성 제고
 -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 및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
 - 여성발전기금의 단계별 확충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정책수혜도 제고
 - 도정의 성별영향 분석의 정교화를 통해 정책의 여성수혜도 증가 도모. 성별영향평가 건수 증대 및 보고서 작성의 내실화
 -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성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정책의 성인지성을 높이고, 정책개선을 선도
 -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시·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무부서 지정 및 협의체 구축 장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유도
- 성평등 취약분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성평등 지수 관리
 - 경남도 성불평등 제고를 위해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 즉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소외여성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지원가능 영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실현
 - 정책적인 영역 이외에 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도출 및 공조체계 구축
- 여성가족개발원 설립을 통한 여성정책의 다각화·정교화
 - 지역 여성·가족의 삶의 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여성가족정책을 수립
 - 교육을 통한 여성능력 개발, 여성사회참여 촉진
- 여성능력 제고 및 취업확대를 위한 여성취업지원기관 운영의 내실화
 - 여성새로일하기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을 위한 종합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경력단절여성의 원스톱 취업지원시스템 운영을 시 단위로 확대(현재 7개소 → 9개소, 도단위 포함)

- 여성 직업교육 훈련 및 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 연계
- 여대생 커리어개발을 통한 청년여성 취업 제고
-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여성폭력 근절
 - 성폭력 우려여성(소녀)을 위한 주거지원사업(1개소 → 3개소)
 -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지원 및 활성화

2) 적극적인 출산 및 양육정책 확대

■ 출산·보육·양육 염려없는 경남 구현

- 출산지원 확대 및 모성, 영유아 건강 증진
 - 출산 장려 및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및 둘째아 출산 지원책 마련
 - 모성·영유아 건강 증진 :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지속 등 모성·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속, 시군보건소·병·의원 협조체제 구축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 전 연령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장애아동,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지속
 - 어린이집 환경개선 확대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희망세상 실현

-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및 아동보호
 - 지역사회 아동복지 인프라구축, 아동급식 지원, 아동학대 예방
- 건강한 청소년 육성 환경 조성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지자체-교육청-경찰청 공조체제 구축
 - 주5일 수업에 따라 청소년 돌봄·체험활동 주말 연장 운영 확대
 - 위기청소년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체제 구축 및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인터넷중독 예방·치료지원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체제 강화

3) 다양한 가족, 다문화사회 구현

■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책지원

- 고령여성노인을 위한 노후지원 체계 구축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지원 및 취업지원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제공, 한국어교육 실시
-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양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이해를 넘어 상생의 다문화 정책 강화

- 외국인 지원기관 연계 및 조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
 - 대부분의 시·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기관 간 업무협조 및 연계·조정 요구
 - 관공서,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 복지타운의 건립으로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도민의 이해도 제고
-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 그 동안 외국인의 한국 이해를 위한 교육이 주가 되었으나, 외국인이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어 어릴 때부터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폭 넓은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성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 병행
-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 경남의 많은 비중이 외국인 근로자이므로,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고용주 및 허위초청·알선자 처벌 강화

제4절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기반확충

1. 현황 및 여건분석

1) 지역교육 현황

① 초등학교

■ 학교수

- 경남의 초등학교 연평균 증감율은 0.98%이며 2010년 현재 495개임
- 지난 10년간 평균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산시 3.73%이고, 함안군과 창녕군, 하동군은 평균 증감율이 각각 -0.53%, -1.08%, -0.53%로 학교수가 감소함

〈표 3-5-27〉 초등학교 수(단위 :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경남	449	455	460	468	476	482	493	491	498	495	495	0.98
창원시	90	92	93	96	99	101	101	103	105	105	105	1.56
진주시	41	42	43	44	44	44	45	43	44	41	41	0.05
통영시	19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0.53
사천시	19	19	19	19	19	19	19	19	20	20	19	0.03
김해시	40	42	42	46	48	51	56	56	56	56	57	3.67
밀양시	23	23	23	23	23	23	24	24	24	23	23	0.02
거제시	29	29	30	31	32	32	33	33	35	35	35	1.92
양산시	23	24	26	26	27	28	31	31	32	33	33	3.73
의령군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0.00
함안군	19	19	19	19	19	19	19	18	18	18	18	-0.53
창녕군	19	19	19	18	18	18	18	17	17	17	17	-1.08
고성군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0.00
남해군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0.00
하동군	19	19	19	19	19	19	19	18	18	18	18	-0.53
산청군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0.00
함양군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0.00
거창군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0.63
합천군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0.00

자료 : 경상남도 교육통계연보(2000-2010).

학생수

- 경남의 초등학생 수는 2003년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증감율은 -1.62%로 나타남
- 창녕군의 평균 증감율은 -4.85%로 학생수가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였고, 김해시와 거제시는 다른 시군과는 달리 각각 2.01%, 1.80% 증가함

〈표 3-5-28〉 초등학교 학생수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경남	269,119	273,581	278,337	283,708	280,491	275,274	270,349	264,776	254,368	240,129	227,813	-1.62
창원시	104,626	106,382	107,402	106,965	103,828	99,406	95,740	92,546	87,052	80,625	75,588	-3.16
진주시	29,041	29,225	29,858	30,228	30,101	29,387	28,590	27,619	26,595	25,144	23,658	-1.99
통영시	10,516	10,308	10,150	10,253	10,019	10,014	9,816	9,867	9,685	9,260	8,905	-1.64
사천시	8,462	8,816	8,916	8,966	9,036	8,816	8,671	8,600	8,270	7,720	7,252	-1.48
김해시	36,061	38,454	40,630	45,180	46,224	47,367	47,982	47,827	47,037	45,081	43,595	2.01
밀양시	8,784	8,738	8,651	8,491	8,189	7,780	7,447	7,122	6,792	6,276	5,806	-4.03
거제시	15,880	16,345	17,084	17,890	18,579	18,907	19,412	19,936	19,882	19,536	18,915	1.80
양산시	20,151	21,142	21,809	22,250	21,787	21,667	22,021	21,736	21,249	20,595	19,853	-0.11
의령군	1,748	1,773	1,770	1,705	1,645	1,570	1,505	1,414	1,350	1,229	1,149	-4.07
함안군	4,583	4,596	4,664	4,669	4,612	4,449	4,220	4,245	4,131	3,987	3,815	-1.79
창녕군	4,673	4,627	4,476	4,409	4,181	4,050	3,911	3,663	3,330	3,056	2,830	-4.85
고성군	3,860	3,790	3,751	3,711	3,560	3,456	3,265	3,140	2,960	2,755	2,627	-3.76
남해군	3,404	3,319	3,232	3,154	3,055	2,975	2,816	2,663	2,501	2,270	2,104	-4.67
하동군	3,667	3,590	3,542	3,597	3,475	3,443	3,230	3,092	2,894	2,607	2,405	-4.07
산청군	1,995	1,955	1,952	1,888	1,917	1,800	1,803	1,710	1,593	1,507	1,405	-3.40
함양군	2,698	2,734	2,665	2,609	2,594	2,548	2,511	2,426	2,325	2,175	2,089	-2.50
거창군	4,780	4,720	4,808	4,799	4,832	4,803	4,660	4,530	4,277	4,081	3,772	-2.30
합천군	3,190	3,067	2,977	2,944	2,857	2,836	2,749	2,640	2,445	2,225	2,045	-4.31

자료 : 경상남도 교육통계연보(2000-2010).

② 중학교

학교수

- 경남의 중학교 수는 10년 동안 증가하였으며, 평균 증감율은 1.16%로 나타남
- 김해시의 평균 증감율이 6.57%로 18개 시·군 중 가장 높았으며, 창녕군과 산청군, 합천군은 10년간 학교수가 줄어들음

〈표 3-5-29〉 중학교 수 (단위 :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경남	239	243	244	253	260	255	258	262	261	265	268	1.16
창원시	50	52	52	54	55	56	56	58	59	62	62	2.19
진주시	19	19	19	19	19	20	20	20	21	21	21	1.03
통영시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2	0.91
사천시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0.00
김해시	16	18	19	22	23	25	26	27	28	29	30	6.57
밀양시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0.00
거제시	16	16	16	16	15	16	16	17	17	17	18	1.25
양산시	9	9	10	11	11	11	13	14	14	14	14	4.70
의령군	5	5	5	5	7	5	5	5	5	5	5	1.14
함안군	8	8	8	8	8	8	8	8	8	8	9	1.25
창녕군	13	13	12	12	12	12	12	12	10	10	10	-2.44
고성군	9	9	9	12	12	9	9	9	9	9	9	0.83
남해군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0.00
하동군	10	10	10	10	11	10	10	10	10	10	10	0.09
산청군	9	9	9	8	9	8	8	7	6	6	6	-3.65
함양군	6	6	6	6	6	6	6	6	6	6	6	0.00
거창군	10	10	10	10	12	10	10	10	10	10	10	0.33
합천군	12	12	12	13	13	12	12	12	11	11	10	-1.68

■ 학생수

- 경남의 중학생 수는 2007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감소하고 있음. 2010년 현재 135,600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평균 증감율은 1.01%로 나타남
- 함양군은 18개 시·군 중 평균 증감율이 -3.7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밀양시와 의령군은 평균 증감율이 각각 5.89%, 5.10%로 중학생 수가 증가함

〈표 3-5-30〉 중학교 학생수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경남	122,943	120,808	120,998	121,852	127,439	132,949	138,384	138,629	138,290	137,403	135,600	1.01
창원시	46,635	46,642	47,674	48,505	50,723	52,139	53,128	52,027	51,051	49,841	48,131	0.35
진주시	14,844	14,654	14,219	14,141	14,488	15,061	15,518	15,682	15,684	15,540	15,310	0.33
통영시	4,872	4,748	4,780	4,948	5,251	5,572	5,878	5,975	6,064	6,084	6,291	2.62
사천시	5,930	5,507	5,221	4,942	4,948	5,018	5,116	5,085	4,989	4,968	4,903	-1.84
김해시	4,081	3,851	3,745	3,661	3,816	3,845	3,937	4,035	4,052	4,000	3,936	-0.32
밀양시	13,738	14,338	15,274	16,450	18,418	20,579	22,616	23,311	23,737	24,085	24,156	5.89
거제시	4,738	4,434	4,199	3,985	3,938	4,073	4,196	4,149	3,970	3,817	3,654	-2.51
양산시	7,883	7,539	7,303	7,302	7,567	7,935	8,448	8,806	9,195	9,585	9,950	2.42
의령군	6,691	6,952	7,452	7,859	8,585	9,300	10,085	10,340	10,688	10,934	10,956	5.10
함안군	931	844	793	764	730	738	706	727	696	718	663	-3.25
창녕군	1,975	1,922	1,845	1,809	1,858	1,911	1,978	1,958	1,909	1,783	1,952	-0.02
고성군	2,467	2,176	2,118	1,975	2,006	1,997	2,078	2,042	1,993	1,919	1,844	-2.78
남해군	1,876	1,760	1,613	1,549	1,541	1,575	1,629	1,592	1,574	1,600	1,607	-1.47
하동군	1,959	1,799	1,669	1,606	1,552	1,544	1,523	1,516	1,474	1,444	1,406	-3.23
산청군	1,960	1,793	1,674	1,562	1,634	1,609	1,693	1,613	1,556	1,478	1,478	-2.68
함양군	1,124	1,029	934	820	746	729	712	740	756	771	756	-3.74
거창군	1,555	1,389	1,308	1,263	1,208	1,218	1,214	1,268	1,231	1,268	1,211	-2.38
합천군	2,696	2,504	2,420	2,283	2,323	2,396	2,514	2,499	2,512	2,415	2,438	-0.93

자료 : 경상남도 교육통계연보(2000-2010).

③ 고등학교

■ 학교수

- 경남의 고등학교 수는 10년간 점차 증가하여 2010년 183개이며, 평균 증감율은 1.38%로 나타남
- 양산시의 평균 증감율은 10.04%로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평균 증감율을 보이는 반면, 창녕군과 고성군의 평균 증감율은 각각 -1.11%, -2.00%로 고등학교 수가 감소함

〈표 3-5-31〉 고등학교 수 (단위 : 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경남	160	161	163	167	174	170	181	180	181	181	183	1.38
창원시	34	35	36	38	41	41	44	44	44	44	46	3.11
진주시	21	21	22	22	22	22	22	22	22	22	22	0.48
통영시	5	5	5	5	5	5	5	5	5	5	5	0.00
사천시	9	9	9	9	9	9	9	9	9	9	9	0.00
김해시	10	11	11	13	15	15	17	17	18	18	18	6.28
밀양시	8	8	8	8	8	8	8	8	8	8	8	0.00
거제시	7	7	7	7	7	7	8	8	8	8	8	1.43
양산시	7	7	7	8	8	4	9	9	10	10	10	10.04
의령군	3	3	3	3	3	4	3	3	3	3	3	0.83
함안군	5	5	5	5	5	4	5	5	5	5	5	0.50
창녕군	9	9	9	9	9	9	9	9	8	8	8	-1.11
고성군	5	4	4	4	4	4	4	4	4	4	4	-2.00
남해군	6	6	6	6	6	6	6	6	6	6	6	0.00
하동군	5	5	5	5	5	5	5	5	5	5	5	0.00
산청군	9	9	9	9	10	10	10	9	9	9	9	0.11
함양군	4	4	4	4	4	4	4	4	4	4	4	0.00
거창군	7	7	7	7	7	7	7	7	7	7	7	0.00
합천군	6	6	6	5	6	6	6	6	6	6	6	0.33

자료 : 경상남도 교육통계연보(2000-2010).

■ 학생수

- 경남의 고등학생 수는 2004년까지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로 증가하여 2010년 130,009명이며, 10년 동안의 평균 증감율은 -0.40%로 학생수가 감소함
- 하동군의 평균 증감율은 -4.59%로 18개 시·군 중 가장 낮게 났고, 김해시의 평균 증감율은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10년 동안 고등학생 수가 증가한 시군은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로 나타남
- 경남 고등학생의 진학률은 89.2%로 나타남

〈표 3-5-32〉 고등학교 학생수와 진학률 (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감율	진학률
경남	136,580	125,590	117,448	114,864	112,426	113,156	114,155	119,431	124,398	129,551	130,009	-0.40	89.2
창원시	51,113	47,479	44,486	43,570	43,180	43,913	44,563	46,447	47,581	48,767	48,114	-0.54	89.8
진주시	20,815	18,712	17,548	16,948	16,482	15,928	15,558	15,695	16,045	16,436	16,411	-2.28	88.7
통영시	5,708	5,458	5,203	5,173	4,753	4,590	4,327	4,375	4,486	4,657	4,666	-1.93	89.0
사천시	5,081	4,219	3,653	3,421	3,281	3,244	3,188	3,239	3,307	3,431	3,487	-3.46	93.3
김해시	11,580	11,286	11,375	12,140	12,947	14,009	15,018	16,640	18,382	20,018	20,392	5.91	92.0
밀양시	5,481	5,043	4,630	4,281	4,015	3,838	3,674	3,653	3,739	3,873	3,873	-3.32	86.8
거제시	7,191	6,883	6,671	6,534	6,351	6,370	6,475	6,855	7,317	7,769	8,019	1.17	89.2
양산시	6,410	6,311	6,070	6,304	6,440	6,897	7,356	8,125	8,793	9,291	9,541	4.14	90.0
의령군	728	646	565	541	527	527	543	595	593	590	600	-1.72	85.0
함안군	2,307	1,941	1,817	1,662	1,546	1,469	1,434	1,499	1,537	1,601	1,583	-3.50	90.0
창녕군	3,643	3,133	2,678	2,495	2,248	2,209	2,089	2,196	2,242	2,335	2,255	-4.45	93.5
고성군	2,956	2,544	2,201	2,011	1,821	1,713	1,673	1,702	1,752	1,808	1,855	-4.33	90.5
남해군	2,556	2,268	2,003	1,893	1,655	1,563	1,575	1,640	1,693	1,785	1,829	-3.05	82.7
하동군	1,624	1,415	1,206	1,109	1,017	995	931	965	958	1,001	994	-4.59	87.9
산청군	1,743	1,447	1,206	1,027	926	882	868	863	914	977	1,066	-4.33	87.7
함양군	1,596	1,388	1,262	1,181	1,072	1,001	1,005	1,046	1,082	1,088	1,162	-2.91	91.8
거창군	4,189	3,826	3,495	3,293	3,082	2,991	2,872	2,834	2,872	2,959	2,970	-3.30	84.9
합천군	1,859	1,591	1,379	1,281	1,083	1,017	1,006	1,062	1,105	1,165	1,192	-4.01	92.6

자료 : 경상남도 교육통계연보(2000-2010).

④ 대학교

■ 계열별 추이와 증감율(학생수)

-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의 학생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의 학생수는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며, 의약계열의 학생수는 감소하였다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예체능계열 학생의 평균 증감율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자연계열 학생의 평균 증감율은 -0.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학원으로의 진학은 자연계열 학생이 17.4%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의약계열 학생의 취업률이 63.0%로 가장 높으며, 교육계열 학생의 취업률이 3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5-33〉 대학교 계열별 학생수 추이(단위 :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문계열	6,658	6,731	6,826	6,967	7,243	7,423	7,702	8,083	7,913	7,819	8,018
사회계열	15,862	16,486	16,823	17,715	18,644	19,197	21,455	22,765	23,991	24,386	25,255
교육계열	4,093	4,172	4,341	4,556	4,798	5,095	5,844	6,033	5,863	6,046	6,036
공학계열	22,064	22,969	23,590	24,425	24,390	24,000	23,727	23,236	23,227	22,567	22,407
자연계열	11,713	11,460	11,135	10,668	10,847	11,180	11,951	12,455	12,887	11,288	11,038
의약계열	2,162	2,230	2,272	2,220	2,151	2,066	2,175	2,269	2,736	2,955	3,304
예체능계열	2,079	2,172	2,270	2,570	2,901	3,442	4,148	4,653	4,917	4,904	4,865

자료 : 교육통계연구센터, 대학통계(2000-2010).

〈표 3-5-34〉 계열별 학생수 평균 증감율과 진학률, 취업률(단위 : %)

	2000-2010 평균 증감율	진학률	취업률
인문계열	1.9	7.2	35.8
사회계열	4.8	1.5	48.8
교육계열	4.1	1.8	33.7
공학계열	0.2	8.0	56.1
자연계열	-0.4	17.4	44.4
의약계열	4.6	7.4	63.0
예체능계열	9.1	7.6	39.1

자료 : 교육통계연구센터, 대학통계(2000-2010).

2) 산학협력 현황

■ 산학협력의 개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학협력”을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 경상남도는 이를 근거로 지역대학의 참여 및 기업체가 상호 협력하는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선도해 나가고 있음

(1) 주요 사업현황

① 산업체 수요와 미래 산업 발전에 따른 인력 양성

■ 고등교육 인력양성

- 2단계 BK(두뇌한국)21 지원사업
 -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기초지자체, 대학, 산업체가 연계하여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박사후 과정생을 지원하여 고급인력 양성

〈표 3-5-35〉 2단계 BK(두뇌한국)21 사업

운영주체	사업명
경남대	고유식품기술연구팀, 경남지능형홈 고급인력 양성사업팀
경상대	의생명과학사업단, 아이큐브 소재·부품인력 양성사업단, 지역특화도시 연구인력 양성사업단 친환경 냉열에너지 기계연구 사업팀, 농생명산업 글로벌 인재육성사업단, 분자재료 및 나노화학사업단, 지역혁신산업 전문경영인력 양성사업단, 첨단기계 항공 고급인력 양성사업단, 핵심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인제대	나노시스템사업단, 미래형자동차 핵심부품 전문인력 양성사업팀, 지능형홈 UID사업단, 기능성비선형 고분자 우수인력 양성사업단
창원대	지역전자 및 광소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지식기반기계산업(메카트로닉스·로봇) 산학연 공동사업단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 인재양성

- 지역발전을 위한 경남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에 필요한 특화된 고급인력 양성
- 경남 주력산업을 견인할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 경제발전 도모

〈표 3-5-36〉 인재양성사업

운영주체	사업명
경상남도, 경남대, 한국폴리텍Ⅵ대학, 경상대	그린에너지 인력양성사업-바이오에너지, 태양에너지
경상남도, 경남대	설계엔지니어(CAD) 양성사업
경상남도, 거창대학	조선기능인력 양성 교육비지원
경상남도, 경남과학기술대	경남IT엘리트 양성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거창대학, 한국폴리텍Ⅵ대학	지역인재육성사업-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관련 전문 승강기 엔지니어 육성사업, 제품프로세스기반 중소기업 맞춤형 디자인 인력양성사업, 플랜트 구조물 제작기술자 양성과정, 플랜트 구조물 제작기술자 양성과정, 항공기능인력양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대	신지식 기계 시스템용 재료인력양성
교육과학기술부, 양산시, 영산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프로젝트 중심의 대단위학점제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엔지니어 양성사업(영산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국토해양부, 경상대, 산업체, 경상남도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향토음식의 세계화 가능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인재양성
중소기업청, 창원문성대학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기술사관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인제대, 경상대, 경남대,	현장특화고급인력 공동 양성사업,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기타	제조용 로봇 실무형 인력양성, 지능형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식경제부, 마산대학, 산업체	인력양성 공동기획
	기업맞춤형 로봇자동화 인력양성사업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 직업역량강화

- 지식기반사회에서 직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로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

〈표 3-5-37〉 직업역량강화 사업

운영주체	사업명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Ⅵ대학	재직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사업
고용노동부	재직자 훈련 지원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Ⅵ대학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교육과학기술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영농정착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시군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창원문성대학)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② 새로운 지식·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 교육역량 강화

-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기반 구축

〈표 3-5-38〉 교육역량강화 사업

운영주체	사업명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대학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지식경제부, 경상대, 경남대	대학IT역량강화(NEXT)사업_반도체공학NEXT사업단, 창의적 자기개발 전자회로 설계트랙(경남대)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진주시, 거창군, 남해군, 거제대학, 남해대학, 연암공업대학, 양산대학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남해대학	전문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진주시, 사천시, 거제시, 산업체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시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 시군	도,KAIST,창원시,창원대 협력사업 지원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시군, 기타	산학연계로봇연구센터 지원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기타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③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 연구지원

- 경남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 연구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표 3-5-39〉 연구지원사업

운영주체	사업명
경상남도	도지사배 녹색기반 PAV 경연대회 개최
경상남도, 기타	산학 기술혁신대전 개최
대학(창원대)	메카트로닉스 지역혁신센터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부산시청, 인제대	암정복 추진연구 개발사업(다발성 골수종 전문연구)
지식경제부,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경남과학기술대	경남기계산업 기업지원사업(한국폴리텍항공대학)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생물화학소재산업 기업지원사업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기타	전자파환경 유해성 대책 Green Belt사업 지원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대	바이오헬스 소재 연구센터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시군, 기타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시군, 기타	의생명산업 기업지원사업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대, KAIST	로봇 지능 구현을 위한 모듈 기반 인지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대, 산업체	경남 지식기반기계 부품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식경제부, 기타	지능형 홈 융합산업 기업지원 사업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고용지원

-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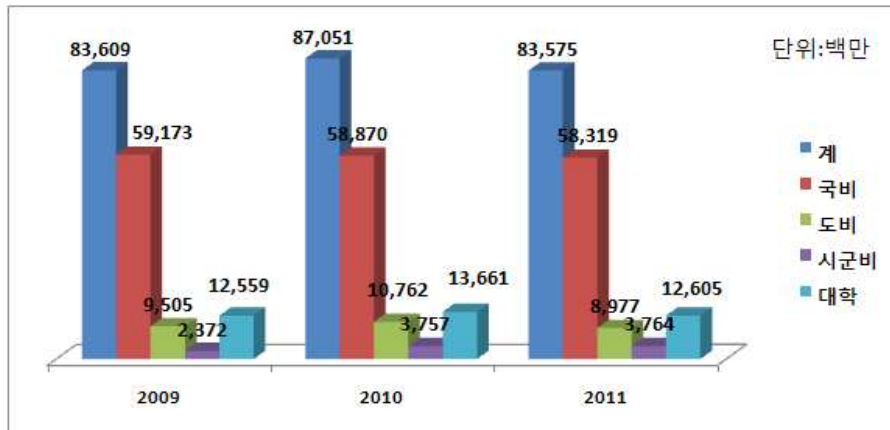
〈표 3-5-40〉 고용지원사업

경상남도	경남 청년EG(Employment Guide)사업
경상남도, 시군, 기타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사업(창원문성대학)
고용노동부, 가야대, 창신대학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가야대)
고용노동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도립 거창대학	인력채용패키지사업(경남과학기술대)
고용노동부, 기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경남대)
고용노동부, 대학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토해양부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체험활동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체험학습사업_대학생(가야대)

자료 : 경남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2011). 재구성

(2) 예산현황

- 산학협력을 위한 예산은 830억원 정도로 국비 지원액이 가장 많고, 대학, 도비, 시군비 순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3-5-14〉 산학협력 예산현황

(3) 문제점

- 지역발전을 위한 경남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하여 특화된 고급 인력양성이 필요함
- 현재의 지역산업구조가 생산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저기술·미숙련 직종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차세대 신산업의 창출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함
- 지역의 숙련기술인력 양성시스템 기능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숙련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훈련체제를 구축해야 함
-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불일치로 인한 인력활용이 극대화되고 있지 못함. 즉,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 고등교육 이외에도 직업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임

2. 여건변화 및 전망

1) 지역여건 전망

■ 학령기 아동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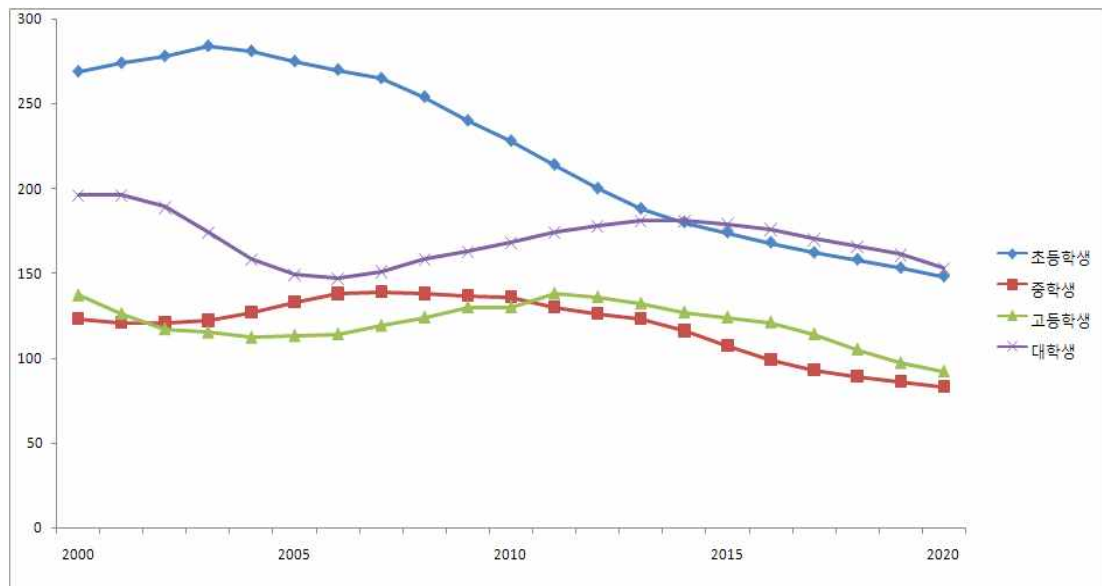
- 경남의 학생수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학령기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0년도와 비교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수는 각각 1.5배씩 감소

〈표 3-5-41〉 학령기 학생 변화추이(단위 : 천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00	269	123	137	145
2001	274	121	126	153
2002	278	121	117	155
2003	284	122	115	153
2004	281	127	112	149
2005	275	133	113	148
2006	270	138	114	147
2007	265	139	119	140
2008	254	138	124	137
2009	240	137	130	130
2010	228	136	130	129
2011	214	130	138	174
2012	200	126	136	178
2013	188	123	132	181
2014	180	116	127	181
2015	174	107	124	179
2016	168	99	121	176
2017	162	93	114	170
2018	158	89	105	166
2019	153	86	97	161
2020	148	83	92	153

주 :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상남도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대학생의 경우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경상남도 통계연보.



〈그림 3-5-15〉 학령기 학생 변화 추이

■ 산학협력과 관련된 지역환경의 변화

- 기술·정보·지식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에 대한 관심 제고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거점인 지역대학의 혁신과 기능 강화 요구
-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과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 기대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통한 취업활성화에 대한 관심 지속

2) 정부정책 변화

■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및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함
-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교 특색살리기 플랜을 추진함

■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교과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강화와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활성화
-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을 확충하고, 영어교육과정을 개편함. 영어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시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평가결과 활용 및 맞춤형 연수를 실시함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편함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문화예술 교육 및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함

■ 교육복지 기반확충

- 지역·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복지 강화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 집중지원
- 전 국민에 대한 평생학습 활성화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지원체제 구축

■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 GDP 대비 2008년 3.37%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지속적 확대
- 정부R&D 예산을 2008년(11.1조원)의 1.5배 증가(2012년 16.6조원)

■ 민간 R&D 투자 활성화 유도

- 민간 R&D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제도 강화
-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 유도

■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 대학운영의 자율화 및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연구개발과 인재양성간 연계시스템 구축

■ 기초원천연구 진흥

- 기초원천 연구비 비중 25%(’08)→ 50%(’12) 확대
- 우주·극지·해양 등 거대과학 투자 내실화
- 원자력 등 미래에너지기술 개발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유치

■ 과학영재학교 확충

-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 글로벌 우수 과학자 유치 및 공동연구

■ 적극적 일자리 대책 추진

-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고용창출 기반마련
- 일자리창출 추진체제 구축

3) 지역정책 변화

■ 학력 제일주의에서 인성중심으로

- 학생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적응하여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도록 함
-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활용하여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함

■ 사교육, 학부모 책임 중심에서 공교육·학교 중심으로

- 방과후 교육, 학력 미달 학생 밀집학교 집중 지원으로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을 운영함
- 교육재정, 교육정책 등에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문화 조성으로 경남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고객중심 행정을 실현함

■ 교육복지와 안전실현 역점

- 교육공동체 상호간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안전망 구축과 학생, 교직원 복지수준을 높임
- 경제·지역·문화·장애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누구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에 대한 관심 고조

■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지역 산업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항공, 로봇랜드, 기계·조선해양, 물류산업 육성
- 기업환경, 기술혁신,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구축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지역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체제 강화

- 지속적인 교육환경의 개선 프로그램 추진 및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기회 제공과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등 물질·비물질 교육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의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지식개발과 인력양성

1) 교육 인프라 확충

① 학교시설 확충

■ 인구추계에 따른 전망

- 경남 전체의 초·중·등 각급 학교의 학생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학교시설의 수요는 차이가 있음
- 지난 10년 간의 학생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학교수 추정
 - 초등학교의 경우, 창원시 1개소, 김해시 2개소(2013년 1개소), 양산시 1개소(2013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
 - 중학교의 경우, 창원시 1개소, 김해시 2개소, 거제시(2013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창원시 1개소, 김해시 1개교(2012년), 양산시 1개소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전망

- 경남은 2010년 현재 28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임. 시군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예상 수용인구는 창원 65,892명, 진주 21,716명, 김해 41,871명, 밀양 8,890명, 거제 10,169명, 양산 36,727명, 거창 3,673명임

- 사업지구의 주택규모나 유입세대의 연령대에 따라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구성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인구유입에 따른 이 지역의 학교시설 수요에 따른 학교신설이 필요함. 특히, 2014년 이후 진주지역은 혁신도시 건설로 학교신설 가능성이 높고, 통영지역은 아파트 신축이 많아 신설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②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

■ 목적

- 공립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기회제공과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황

- 현재, 학교 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안교육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운영(4교) 중에 있으나, 대안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안교육시설은 부족한 실정임

■ 추진방향

- 학교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의 형태 등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Wee스쿨¹⁹⁾형 대안교육기관의 조기설립을 추진함

■ 추진계획

- 대안학교 설립 기본방향 설정(2011) : T/F팀 구성·운영
- 대안학교 설립 예산 확보 및 시설공사(2012)
- 공립 대안학교 개교 : 2013년 3월 개교 목표(1교), 2014년 3월 개교 목표(1교)
- 성공적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Wee스쿨형 대안교육기관 설립(1기관) : 2012년 3월 장기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 정책과제

-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대안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대안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등의 제고가 필요함

2) 교육환경의 개선

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 목적

19) We+education 또는 We+emotion의 합성어로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교육복지 시설 개선
- 학교부지 내 지자체와 복합화 시설을 공동 건립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역 교육 공동체 역할 수행
-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부속시설을 확충하여 더욱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
-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 현황

- 2011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주요정책 사업 추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교육환경 개선사업 실태조사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으면 사업시행이 어려움

■ 추진방향

- 매개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
- 복합화 사업 추진(지자체)수요조사
-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학생 안전 및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
- 재난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 강화

■ 추진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 연차적 예산확보 및 계획수립
 - 편의시설 학교별 설치·미설치 현황 파악
 - 연도별 예산현황을 파악하여 예산 편성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점검
-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지자체 대상)
 - 초·중등학교 부지 내 주민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사업 발굴 수요 조사
 -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책자 제작)
 - 현재 운영 중인 복합화시설에 대한 교육청 및 지자체 운영협의회 구성
- 교육환경 개선사업
 - 대수선 : 교실 및 바닥교체, 방수, 창호 교체 등 위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
 - 화장실 개선 : 학생용 및 교직원용 노후 화장실 개선
 - 외부환경 개선 : 옹벽, 담장, 배수로 등 위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
 - 기타시설 개선 : 기타시설 등 위험시설 개선

과제

- 장애 학생들의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연도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학교시설 복합화로 학교와 지역 사회간의 연계체제 구축
-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시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 위험 시설물 개선을 통한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②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목적

- 노후된 기존학교를 자연친화적인 학교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 조성
- 저탄소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
- 학교 내 휴식 공간 및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잔디 식재 등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 공동 활용
- 학교 내 범죄예방 및 야간 운동장 개방으로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

현황

- 친환경기법 적용되어 있지 않고 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함
- 2010년 신축 및 전면개축 7개교에 33억 2천백만원을 투자하여 334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운영

추진방향

- 생태학교, 친환경학교, 에너지 절감형 학교 등의 그린스쿨 사업 추진
-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학교 숲 조성을 통하여 생명을 느낄 수 있는 학습장소 제공
- 태양광가로등 설치로 우범화 및 범죄 예방,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기회 제공

추진계획

- 그린스쿨 사업 추진 : 연차별 예산확보 및 대상학교 선정
-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향후 신·이설 예정학교, 단설유치원 실시설계 시 건축공사비의 5%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에 반영
 - 2012년 개원 예정인 경남교육종합복지관에 55Kw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녹색학교 조성 : 연차별 예산확보 및 대상학교 선정

- 태양광가로등 설치 사업
 - 매년 설치대상 학교 선정을 위하여 각급학교로부터 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안내 및 설문조사 실시

과제

-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원 같은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자연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및 에너지절약으로 공공요금 절감
- 녹색학교 계획과 조성을 학생과 함께 참여하므로 환경체험 제공
- 무한청정 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의 이용체험 및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의 심성교육 정착

③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목적

- 선진화된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 주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 및 개방
- 학교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시설 유지 및 관리

현황

-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등 학교 체육시설 확충에 지자체의 참여 확대 : 10년도 성과지표 목표액 40억원 보다 2.74억원이 많은 42.74억원 달성(다양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 (' 10.10))

추진방향

- 선진화된 학교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센터로 활용
-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의 충족 및 눈, 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전전후 활용 가능한 체육관, 운동장 등 확충 및 선진화 필요

추진계획

-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 학교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 학교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 학교 운동부 생활관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 체육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정책과제

- 풍부한 학교체육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인교육의 기틀 마련
-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방을 통하여 체육활동 수요 충족과 경기력 향상
- 학교스포츠클럽 저변화를 위한 학교체육 인프라 구축

④ 쾌적하고 위생적인 학교 환경 조성

목적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학습환경 구축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체계 구축

현황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면적별 차등지원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 수도물 전용 음용대 설치, 지하수, 정수기 먹는 물 사용학교 표본 수질 검사
- 학교 공기질 관리 및 깨끗한 학교 만들기, 학교 석면 시설 유지 관리(전 학교)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및 교육환경평가,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추진방향

- 보건실 현대화 사업 면적별 대상학교 선정 및 사업 실시
- 먹는 물 표본 수질검사 실시
- 학교환경 위생관리자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실시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준수 및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한 보건 관리

추진계획

-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 30㎡이상 보건실 면적별 차등 지원
-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 연차적 수도물 전용 음용대 설치 지원

- 표본학교 수질검사 실시
- 학교 공기질 관리 및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석면 관리
- 학교환경위생관리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교육장 및 학교장)
 - 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학교보건위원회 회의

과제

- 선진화된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체계 구축

3) 산학연 연계에 의한 인력양성 강화

지역 전략산업 분야 지식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강화

- 경남의 전략산업 분야에서 도내 주요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의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지식개발 및 첨단기술 인력을 양성 지원
- 국내외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역외 인적자원 적극 활용 유치
-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게 지역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배분·활용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도민 평생교육 체제 구축

- 지역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사회변화에 따라 유연화·개방화 학습체제 구축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수직적·수평적 평생학습 네트워크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허브가 될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숙련 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

- 경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련 기술인력의 양성·공급체계를 혁신하여 지역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화 도모
-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을 통한 지역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체제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혁신 유도

-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가 보유한 지식자원의 교류·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의 개발과 공유·확산 촉진
 -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의 대학별 교육·연구기반 구축
 - 미래형 지능형 홈 산업 조기 활착을 위해 지방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육성체제 구축

- 생물산업 기반구축 및 생명공학 신규과제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 지역의 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 강화 추진. 서부권의 미래 성장전략 프로그램으로 육성 중인 산청 세계 전통의학엑스포·한방의료·향노화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한의전문대학원 유치

■ 선진화된 취업지원기관 운영

- 경남 일자리종합센터, 고용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일자리 연계기관의 유기적 연계
- 구인구직 불일치(miss-match)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적 대안 도출

제5절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공

1. 현황 및 여건분석

■ 주택의 보급과 양적수준

- 2010년 현재 경남의 주택보급률은 (新)주택보급률 기준 104.3%로 전국 주택보급률(101.9%)을 상회하고 있음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전국의 일반가구수는 연평균 1.76%, 주택수는 2.5% 성장하였고, 경남의 일반가구수는 연평균 1.74%, 주택수는 연평균 2.48%로 전국과 경남이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5-42〉 전국대비 경상남도 (新)주택보급률(2005~2010)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
전국	일반가구수 (천가구)	15,887.2	16,105.3	16,363.6	16,618.8	16,862.3	17,339.4	1.76
	주택수 (천호)	15,622.6	15,977.9	16,294.9	16,733.1	17,071.3	17,672.1	2.5
	보급률(%)	98.3	99.2	99.6	100.7	101.2	101.9	0.72
경남	일반가구수 (천가구)	1,056.0	1,069.6	1,083.5	1,097.6	1,110.9	1,151.2	1.74
	주택수 (천호)	1,062.1	1,086.1	1,111.1	1,145.7	1,172.8	1,200.7	2.48
	보급률(%)	100.6	101.5	102.5	104.4	105.6	104.3	0.72

주 : 일반가구(보통가구 + 1인가구 + 5인이하 비핵연가구)

자료 : 통계청, (新)주택보급률

■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 경남 시 지역 주택보급률의 평균은 103.0%이며, 창원시가 101.0%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음. 그 외의 시 지역 보급률은 102.4 - 109.0% 사이의 수준에 있음
- 반면 군 지역의 평균 주택보급률은 110.6%로 나타났으며, 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합천군 지역에서는 110% 이상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은 주택보급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반면 군 지역의 경우 공가비율이 높으므로 효율적 재고관리가 필요함
- 경남의 주택유형은 전국 평균에 비해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편임. 2010년 현재 전국 주택재고 중

아파트의 비율은 48.5%, 단독주택 비율은 40.1%이나, 경남의 아파트 비중은 46.5%로 전국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 시군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아파트 비율이 53.4%로 나타나고 있으며, 군 지역은 단독주택이 81.1%에 달하고 있음

〈표 3-5-43〉 경남의 주택유형 및 주택보급률 분포(2010)(단위 : 호, %)

구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 보급률
전국	17,672,100 (100)	7,084,172 (40.1)	8,576,013 (48.5)	536,070 (3.0)	1,314,452 (7.4)	161,393 (0.9)	101.9
경남	1,200,745 (100)	581,741 (48.4)	558,688 (46.5)	24,737 (2.1)	23,456 (2.0)	12,123 (1.0)	104.3
시부	987,799 (100)	409,091 (41.4)	527,517 (53.4)	20,287 (2.1)	21,346 (2.2)	9,558 (1.0)	103.0
군부	212,946 (100)	172,650 (81.1)	31,171 (14.6)	4,450 (2.1)	2,110 (1.0)	2,565 (1.2)	110.6
창원시	375,731	158,564	199,053	10,181	5,123	2,810	101.0
진주시	125,153	67,332	53,341	1,178	1,589	1,713	102.6
통영시	54,612	28,580	23,678	1,199	596	559	108.9
사천시	44,571	24,025	18,270	1,359	358	559	107.9
김해시	169,162	48,871	106,939	1,414	10,220	1,718	102.4
밀양시	43,896	29,191	12,498	1,052	690	465	109.0
거제시	82,037	30,482	46,777	2,729	1,203	846	102.5
양산시	92,637	22,046	66,961	1,175	1,567	888	105.9
의령군	13,338	12,008	855	264	80	131	113.6
함안군	26,426	17,173	8,497	335	132	289	110.9
창녕군	26,672	20,945	3,822	979	561	365	111.2
고성군	23,853	18,492	4,219	523	375	244	111.3
남해군	21,920	19,483	1,586	294	168	389	111.3
하동군	20,078	17,810	1,710	206	201	151	109.4
산청군	15,337	13,837	954	184	50	312	113.9
함양군	17,640	14,479	2,434	503	85	139	107.9
거창군	25,111	18,195	5,677	668	295	276	107.0
합천군	22,571	20,228	1,417	494	163	269	112.0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2011)

■ 주택의 점유형태

- 2010년 현재 경남의 자가소유 비율은 전국 평균인 54.3%보다 높은 63.2%임. 그러나 2000년 이후 경남의 자가율은 76.5%에서 63.2%로 하락하였으며, 점차 월세 등 임차가구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

〈표 3-5-44〉 주거의 점유형태별 분포(2000~2010) (단위 : 호, %)

구분	전국			경남		
	2000	2006	2010	2000	2006	2010
자가	7,735,057 (70.58)	8,828,100 (55.57)	9,406,893 (54.25)	597,470 (76.54)	661,577 (62.65)	727,336 (63.18)
전세	2,122,422 (19.37)	3,556,760 (22.39)	3,755,576 (21.66)	111,918 (14.34)	151,777 (14.37)	147,491 (12.81)
월세	797,817 (7.28)	3,011,855 (18.96)	3,715,998 (21.43)	47,292 (6.06)	207,028 (19.60)	237,662 (20.65)
기타	304,046 (2.77)	490,413 (3.09)	461,091 (2.66)	23,923 (3.06)	35,625 (3.37)	38,688 (3.36)
계	10,959,342	15,887,128	17,339,558	780,603	1,056,007	1,151,175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해당년도)

2. 여건변화 및 전망

■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 증대

- 지속적인 주택건설로 지역내 주택보급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렇듯 주택 자체의 공급과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개별 주택의 주거수준은 향상되어 가고 있음. 양적 측면의 보급이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원녹지, 문화시설 등 질적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택정비의 필요성 증대

- 경남은 전체 주택 중 198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신축된 주택의 비율이 87.4%로 전국의 90.3% 비해 낮은 편임. 향후 주택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로 인해 주택정비의 필요성이 높음
 - 최근 5년 간(2005년-2010년)은 신규 주택의 공급이 활발한 편임. 경남 주택의 16.2%에 해당하는 157,385호가 건설되어 동 기간 전국의 주택재고 대비 15.7%의 신규주택 공급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특히, 먼 지역의 경우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주택의 비중(22.6%)이 전국 평균(9.7%)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농어촌 지역의 주택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건물의 내구년수를 기준으로 경남지역의 주택 정비소요를 산출하면, 내구년수 30년에 해당하는 1979년 이전에 건축된 121,813호에 대한 주택정비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3-5-45〉 건축연도별 주택 건축물 분포현황(2010) (단위 : 호)

행정구역별	계	2005~2010	1995~2004년	1980~1994년	1979년 이전
전국	13,883,571 (100)	2,174,160 (15.7)	5,383,734 (38.8)	4,976,596 (35.8)	1,349,081 (9.7)
경상남도	968,582 (100)	157,385 (16.2)	341,554 (35.3)	347,830 (35.9)	121,813 (12.6)
동부	560,403 (100)	85,025 (15.2)	196,920 (35.1)	237,156 (42.3)	41,302 (7.4)
읍부	126,654 (100)	24,312 (19.2)	45,521 (35.9)	40,036 (31.6)	16,785 (13.3)
면부	281,525 (100)	48,048 (17.1)	99,113 (35.2)	70,638 (25.1)	63,726 (22.6)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2010)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주택정책의 변화

-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의 시설을 보완하고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은 노인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
- 특히,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행정,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 주거지의 입지를 고려한 거점적 의료·복지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임

3. 계획목표 및 추진시책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주거의 질 향상

- 도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의 질적 향상을 계획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 변화하는 주택수요의 양과 질적 수준 제고

- 라이프스타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주택 보급
- 1인 가구, 고령화 등 수요변화 고려한 주택보급 계획

■ 저소득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서민임대주택 건설 확충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1) 주택수요 전망

■ 주택수요 전망

- 경상남도 주택수요는 2020년까지 32만 7천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계획인구는 본 종합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340만명(추계인구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계획목표 주택보급률(신주택보급율 기준)은 112%로 설정하였음
 - 2020년 112%의 주택보급율은 최근 5년 간의 주택보급율 성장추세를 연장하여 설정한 것임
- 이상 가구수 증가전망치와 계획 주택보급률을 고려한 총주택수요량에 현재(2010) 시점의 주택수를 제외하고 연간멸실률(0.98%)을 고려하여 최종 주택수요를 추정하였음
- 주택수요 및 공급량에 따른 택지수요는 개발 용적률에 따라 총주거 소요면적은 2020년까지 약 197,787,654㎡으로 전망됨

〈표 3-5-46〉 2020년 주택수요 추정

구분	단위	계획원단위	비고
계획인구	인	3,400,000	추정
가구원수	인	2.7	추정
가구수	가구	1,259,259	
주택보급률	%	112%	추정
총주택수요량	호	1,410,370	

2) 추진시책

(1)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주거의 질 향상

■ 도시 주거환경의 개선

- 개성있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어메니티 공간 창출
 -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주거지는 도시재생·재정비 차원에서 정비
- 창원시 구마산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계하여 인간적·친환경적으로 주거지 정비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개량 및 빈집정리 지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추진
- 또한, 기존의 농어촌 지역개발정책과 상호연계(Policy Mix) 및 종합적인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하고,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농어촌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 농어촌지역은 기존 주택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서비스의 충실한 제공과 어메니티 제고의 관점에서 주거지를 정비
-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컨드 하우스, 레저용 주택으로 농어촌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을 검토

■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살기좋은 주거지역 조성

-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현재보다 확충하여 주거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공유공간 및 개방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만들기 주거환경정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거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함
- 주거단지 공간을 개방하여 공공공간과 통합되도록 하며,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현재보다 확충하여 주거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담장없는 마을만들기 등 살고싶은 지역(도시)만들기를 적극 추진함

(2) 변화하는 주택수요의 양과 질적 수준 제고

■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고려한 주택 보급

-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주거 유형개발 및 주거단지 설계 유도

■ 1인가구, 고령화 등 수요변화 고려한 주택보급 계획

- 인구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주거수준의 제고 요구 증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
 - 장애인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주거단지 조성
 - 농촌경관 및 지역특성을 살리고,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전원 주거단지 조성
 - 기존 농촌주택의 공간관리를 위해 도시주민들에게 비투기적 목적의 주말농장 구입·임대 기회 확대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
 -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할 경우 조세지원,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원과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공급 확대
-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 거주하는 세대간 통합형(generation mix) 주거단지 조성
-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오피스 기능을 겸비한 재택근무형 주택 등 여가와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주택 공급
- 노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특수계층의 주거환경을 제고
 - 고령자전용주택의 공급 확대, 생활·의료·휴양기능이 어우러진 건강문화클러스터 조성, 고령자

가 대부분인 농촌의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을 공급하여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거 질 향상을 도모

■ 경남형 저탄소 녹색주택(에너지 제로 하우스) 공급 추진

- 2008년 기준으로,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22.2%를 차지하며 건축물 전체 에너지사용량 중 가정에서의 소비가 53%(상업 37%, 공공기타 10%)를 차지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분야의 역할이 필요함
- 따라서, 경상남도의 지역적 기후조건과 경제수준, 사회적 요구사항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보급형 저탄소 주택의 개발이 필요함. 저탄소 주택의 보급 확대를 통해 경남도의 온실가스 감축(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영구임대주택 그린홈화 개보수 사업 등 기존 주택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기존 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조하는 사업 병행

(3) 저소득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정책 강화

-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물리적·경제적 차원의 지원 필요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정책 추진
-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 도입 추진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및 임대보증금 지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연간 200가구)의 장기적 확대 추진

■ 공유지 개발 민관 협력형 서민임대주택 공급 추진

- 민관 협력형 서민임대주택사업은 경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제공하고, 신탁회사가 임대 가능한 서민·근로자용 소형임대주택을 건립 후 30년간 장기 임대해 투자자금을 회수한 후에 토지와 임대주택을 경남도에 반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임대주택사업의 유형임
- 도민 부담과 도 예산의 투입이 없이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업의 가능성을 평가한 후 도내 서민·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확보

-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택지는 신규개발가능지역(공공택지개발지, 토지이용전환지역 등)에서 최대한 확보하되 지속적인 임대주택 건설시 택지부족이 예상되므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하여 공급